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 영 진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상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 영 진

서영진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조 홍 식 (인)

부위원장 하 정 화 (인)

위 원 강 상 경 (인)

국문초록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서영진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외적 자원인 인지한 사회적 지지,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와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으로 나눈 심리사회적 자원이 우울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의 확대에 의해 장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어 왔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재활은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직업재활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재활로 강조된다. 직업활동에 관한 욕구는 소득보장과 의존 또는 빈곤의 감소,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심리사회적 과정들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울의 다양한 인지적·신체적 증상들은 무기력함과 의욕저하를 느끼게 하는 등 취업동기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스트레스로서의 장애인이 인지하는 우울수준 경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제시된 연구들에서는 결과로서의 우울과 우울요인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서의 취업욕구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인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가?’, ‘다섯째,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이다. 연구모형은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 검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장애인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성인기에 해당하는 장애인 404명이며, 선형 회귀분석 및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하는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실제 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 자아존중감의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던 심리사회적 자원 요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이 스스로를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장애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낮아졌으나, 반대로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 횟수는 증가하였다.

셋째,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 중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중재변수 중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부분적으로 성립되었다.

넷째, 중재변수로 설정한 인지한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은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횃수는 사후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못하였으므로 심리사회적 자원 모두가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수인 심리사회적 자원은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횃수,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각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취업욕구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애인의 우울과 이로 인한 정서적인 특징이 취업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우울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리 정서적·신체적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특징을 통해 우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부모나 형제 등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심리사회적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의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취업욕구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적이며 순환적일 수 있음을 검증한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순환적 관계를 살펴 보기에 한계가 있는 횃단연구라는 점,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장애인의 직업성과를 단순히 취업상태만으로 평가한 점, 패널 자료로서의 변수 부재로 인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해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의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장애인, 취업욕구,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심리사회적 자원, 중재효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

학 번: 2011-2314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문제	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6
제 1 절 장애인의 취업욕구	6
제 2 절 장애인의 우울과 취업욕구	10
제 3 절 장애인의 우울과 심리사회적 자원	15
제 4 절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취업욕구	19
제 5 절 스트레스 과정 모델	20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3
제 1 절 연구모형	23
제 2 절 연구가설	24
제 4 장 연구방법	26
제 1 절 분석자료	26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7
1. 종속변수: 취업욕구	27
2. 독립변수: 우울	27
3. 중재변수: 심리사회적 자원	28
3.1. 사회적 지지	29
3.2. 자아존중감	30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30
제 3 절 자료분석방법	33

제 5 장 연구결과	38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8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1
제 3 절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43
제 4 절 가설 검증	46
1.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46
2. 인지한 우울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51
3.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56
4.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64
5.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66
제 6 장 결론	70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70
제 2 절 논의	75
제 3 절 연구의 함의	86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4
참 고 문 헌	97
부 록	114
Abstract	116

표 차례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5-2> 조사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	40
<표 5-3> 조사대상자의 취업욕구 특성	40
<표 5-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1
<표 5-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45
<표 5-6>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50
<표 5-7>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55
<표 5-8>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63
<표 5-9>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의 매개효과 검증(표준화계수)	65
<표 5-10>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69
<표 5-11> 연구결과 요약	74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모형	23
-------------------	----

모형 차례

[모형 1]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36
[모형 2] 우울모형	47
[모형 3] 우울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52
[모형 4]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57
[모형 5] 통합모형	61
[모형 6] 표준화 방법	65
[모형 7] 상호작용 효과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소득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안녕을 얻을 뿐 아니라, 직업에서 오는 소득이나 사회적 관계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의 밑바탕이 된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장애인들에게 직업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은 직업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의존이나 빈곤이 감소되고 정신적 증상이 경감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장애인은 일을 하면서 자립적인 존재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Lloyd & Waghorn, 2007). 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에 있어서 직업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매우 중요하다(이형열, 2007).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취업은 이러한 역량강화에 기반을 둔 회복의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박석돈·김선주, 2003). 그러나 장애인은 다양한 생활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불안정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족갈등, 사회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취업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취업을 통한 소득상승으로 수급탈락의 우려가 있어 취업동기가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장애인이 취업욕구를 상실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노동시장에서 이탈된다면 지속적인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상현, 2005). 따라서 장애인이 취업욕구 향상으로 구직활동과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은 물론 정책제정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최일섭·최성재, 1995).

다양한 부정적 심리사회적 과정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이웃, 지역 사회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이 양적·질적으로 낮아지면서 비장애인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다. 우울의 다양한 인지적·신체적 증상들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기력함과 의욕저하를 느끼게 하고 이는 취업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취업상태로 가는 과정을 방해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만한 심리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하다(이현주·강상경, 2009). 따라서 장애인은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심리적 장애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이상준·안수영, 2011).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고려해볼 만한 특성 중 하나로 ‘자발성’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장애를 단순하게 규정했던 기존의 시각과 의료모델에서 복합모델과 사회·환경중심 모델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고용환경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장애인이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전략과 함께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재활·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근로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근로참여와 급여탈피를 촉구하고 있다(심진애·남용현·강필수, 2005).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스스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직업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장애인의 자발성이 강조된다. 사람들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할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자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이 조정된다는 뜻이다(오혜경, 1998).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 찾기’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 개인과 가족들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들은 점점 다양하고 폭넓게 표출되고 있다. 취업욕구 역시 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구직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신체적 취약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장애인이 취업을 할 의사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직을 위한 고용서

비스나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욕구’다. 취업욕구는 직접적인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의 기본요소이며, 만약 취업욕구가 없어진다면 장애인은 구직활동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신적·신체적으로 손상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근로활동이 제약된다는 기존의 장애관에서 벗어나 중증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근로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최근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의 확대, 각종 재활프로그램과 장애인고용정책 등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향상시키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의 객관적 특성들과 취업결정요인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사회 환경적 관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나 자존감 저하, 불안, 장애수용과 같은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이해하려는 개별적인 노력과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는 결국 장애인의 취업과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인지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취업을 위한 욕구를 강화하여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는 장애인을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이끌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스트레스의 결과로서의 장애인의 우울을 제시하거나 장애인 우울의 요인만 살펴보는데 그친다.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 증상을 통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과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Cohen &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심리사회적 자원 중에서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사정하는 내적 자원으로 보았다(Rosenberg, 1965).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나 자아

존중감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각기 다른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인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인 우울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욕구 증진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에 의해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가 설명이 되는지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사이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에 따른 취업욕구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나아가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인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가?

연구문제 5.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 1 절 장애인의 취업욕구

장애인의 욕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는 의료재활 욕구를 비롯하여, 교육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은 복합적이고 폭넓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이들 욕구가 주로 의료와 소득을 중심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정책은 고용문제와 연관이 있었다기보다는 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물질적 지원에만 한정되었다(이달엽, 1996).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권리를 갖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공급자 위주의 기존 정책을 벗어나 이용자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lfensberger(1972)의 사회적 역할가치 강화론은 매우 직업지향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Wolfensberger는 ‘사회적 역할가치’라는 용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가치 절하되는 상황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liver(1996)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의 주창자로, 장애인이 정상적인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장애인의 절실한 욕구의 충족을 통해 사회와의 협력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취업욕구는 가장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장애인의 욕구이다.

Maslow(1970)는 욕구 이론(Motivation theory)을 통해 인간이 갖는 5단계의 욕구를 설명하였다. 인간의 욕구는 다섯 단계로 나뉘며 하위욕구부터 상위욕구로 전개된다. 가장 첫 단계인 생리적 욕구와 두 번째 단계인 안전에 관한 욕구가 충족되면 세 번째 단계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 단계에는 사회참여가 포함된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존중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목시켜보면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장애인은 보호정책과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연금, 장애인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의 이용 등 지역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역할이 주어지게 되며, 직업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또한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한다.

취업욕구는 사람이 직업을 얻거나 얻기 위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말한다. 현대 장애인들은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추세에 있으며(정민선, 2012),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 역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상황은 아직 장애인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이들의 취업욕구가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회의 노력은 중요하다(이성규, 2001).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좌절되거나 개선되는 변화의 양상이 개인의 어떤 심리적 요인이나 적응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취업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직업재활과 취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능의 제한 또는 노동시장에서 취업확률의 차이나 임금 차이 등의 차별(오욱찬, 2011; 김정호, 2013)을 경험하는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을 한다 해도 직종과 취업유지기간 역시 제한적이다(허수정, 2011). 2011년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6차 장애인 부가조사」에서도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사람들(총 183명)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103명, 56.3%)가 “장애가 심해서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답하였다. 장애의 손상 및 기능적 제약과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는 취업 욕구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상태 및 장애관련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과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민수(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등급 등에 따라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고서도 정작 직업유지나 고용은 되지 않는 등의 고질적인 고용시장의 문제(심진예, 2008; 허수정, 2011)로 인해 안정성을 잃은 장애인들은 취업욕구가 낮으며, 상당수의 빈곤층 장애인들은 수급자 탈락 우려로 인해 오히려 취업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은미, 2012). 경증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업욕구는 높은 반면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정혜영, 2011).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이 실업의 90%를 차지하였고, 비취업 장애인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으려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황현철, 2011). 장애인의 취업 현황은 이처럼 미비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스스로 직업생활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부와 공단 등의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과 자기 결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조절되고,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된다(Ryan & Deci, 2000; 김정숙, 2011 재인용). 즉, 인간이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등의 기본적 심리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자기결정성 동기의 발달이 촉진된다. 자율성은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능성은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도록 한다. 관계성은 다른 개인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일컫는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을 향상시키며 욕구 고취로 인해 스스로 일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직업유지활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취업 욕구는 취업 및 직업유지의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한계와 가능한 수행 능력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취업욕구를 증대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삶의 의지 및 취업 욕구가 높으면

로 이들에게 직업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희순·장기연(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구직활동의 적극성과 일자리 수용자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구직 효능감이 높은 장애인들에게서 취업 욕구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연구 대상이 정신장애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정신장애인에게 취업욕구는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방현, 2001; 홍혜영, 2002; 김지년, 2008; 김선화, 2009; 최희철, 2009). 이외에도 중도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등의 취업욕구를 살펴보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취업자의 47.2%와 미취업자의 71.7%가 재취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석돈·김선주, 2003). 또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취업욕구를 비교하여 분석하거나(오세철, 2004),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 및 건강변수를 살펴보거나(손광훈·심미영·염동문, 2010), 여성지체장애인(김기태·박병현·최말옥, 1999),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우희순·장기연, 2012)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장애인 취업욕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손광훈·심미영·염동문, 2010).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 중에서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 취업욕구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제 2 절 장애인의 우울과 취업욕구

Beck(1979)은 우울한 사람일수록 좌절, 실패, 자기부정,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 사고가 중심을 이루게 되므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권석만, 2003). 특히 장애수용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초기충격(initial shock), 부인(denial), 우울(depression), 분노와 회의(personal anger and questioning), 적응과 성장(integration and growth) 이라는 장애적응단계 5단계를 겪게 되는데(조성재, 2007), 이처럼 우울은 장애수용 과정에서도 빠질 수 없는 단계이며 장애인이 극복해야할 심리적 어려움이기도 하다.

반면 Teasdale(1988)은 우울 인지가 우울 감정을 일으키는 ‘인지에서부터 감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Beck의 이론과는 달리, ‘인지에서부터 감정’, ‘감정에서부터 인지’라는 두 요소의 방향성이 쌍방향적임을 통해 인지와 감정 중 어느 쪽도 먼저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즉, 한 번 우울 상태가 되면 우울적 인지 처리의 패턴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상실과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life events)이 우울증의 발생에 주요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우울 증세는 커다란 좌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인 주요한 생활사건(major life events)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사소한 생활스트레스인 미세한 생활사건들(minor life events)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생겨날 수도 있다(Kessler, 1997; 권석만, 2003).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여 극복하는 힘이 약한 편이다. 그러나 우울 스트레스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대처할 수 있는 내·외적 자원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조혜정, 2013).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심리사회적인 자원은 부족하므로 비장애인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황에 자주

높이게 된다. 2006년부터 매해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경우에도 장애인 집단이 비장애인 집단보다 경미한 차이로 우울수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황주희·전동일·김홍모, 2014).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의욕이나 취업에 대한 욕구는 저하된다. 우울의 다양한 인지적·신체적 증상들은 무기력함과 의욕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경미한 우울 증상은 보편적으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우울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또는 반응적 장애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 증상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 상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느낀다. 또한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정상적 상태의 기분변화에서부터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징을 가진다(Battle, 1987; 이익섭·김동기·엄태영, 2007 재인용). 즉,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단계에서 임상적 수준의 만성적 우울증 증세로 넘어가는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울증상은 수면장애나 정신운동의 지연 및 초조와 불안, 식욕상실, 대인관계의 긴장, 불안감, 열등감, 욕구 불만, 두통, 복부통증, 어깨 결림과 같은 신체화 증상과 사회 편견의 내면화로 인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자기비하와 같은 인지증상 등을 경험하게 한다(Koenig, et al., 1993; Kirmayer & Robbins, 1991; 권복순·박현숙, 2005 재인용). 주변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은 우울과 함께 무력감(powerlessness)을 경험하게 되는데(Miller, 1983), 무력감은 쉽게 학습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느끼게 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며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무력감과 우울은 개념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Woo & Lee, 1998; Park, 1999; Milberg, Strang, & Jakobsson, 2004). 그 결과 무기력이나 자존감의 저하, 만성화, 일반화와 같은 특정 증상을 가지면서 재활 의욕을 잃게 된다. 우울한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이는 우울로

부터 극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Gladstone et al., 2007). 또한 능숙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은 취업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차별을 받는다는 감정 역시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재취업욕구는 낮게 나타난다. Kuypers & Bengtson(1973)의 사회적 낙인이론(Social labelling theory)에 따르면 사회적 와해증후(Social breakdown syndrome)를 겪는 사람은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게 된다(박혜전·이달엽·이승욱, 2003). 장애로 인해 사회 내에서의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규준이 없어지면 이로 인해 우울감이 발생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 취약해지며 사회에서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결과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가 저하된다.

우울증상이 악화되어도 기존에 스스로가 우울하다고 느끼던 사람은 사건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역기능적 태도나 우울 생성적 귀인양상은 지속될 수 있다(Abramson, & Seligman, 1978; Teasdale, 1993). 우울증상은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후 치료로 인해 증상이 회복되어도 기존의 인지적 오류가 남아있어 이들의 사회에서의 적응성을 방해한다.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약물치료 등 의료적 재활개입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취업이나 기술훈련 중심의 프로그램의 제공은 오히려 장애인으로 하여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할 수 있으며 취업욕구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정민선, 2012).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낮고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1개월 평균 수입액이 99만원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전체 응답자 중 31.4%에 이른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6.9%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막는 주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는 많으며, 오히려 수급자 신분을 벗어나게 될 걱정으로 인해 취업욕구가 저하된 장애인들도 있다(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신체화, 우울, 공포, 불안 등이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박상규·이병하, 2004). 우울과 이로 인한 신체화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며, 장애인의 경우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음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울 증상이나 본인이 인지한 우울감에 따른 서비스의 욕구,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은 살펴볼만하다. 남은지(2010)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높은 우울수준이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인 근로활동과 수급탈출을 이끌어냄을 밝혔다. 조성호(2002)도 소득 등의 물질적 보상보다는 정신적 보상과 안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장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장애인의 우울수준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규·이병하, 2004; 백학영·고미선, 2007; 이원진, 2010; Parish, et al., 2008; 황주희·전동일·김홍모, 2014).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장애인 개개인의 안정적인 직업의 획득일 것이며(김종진·박자경, 2007),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욕구가 고취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취업욕구가 높은 사람의 취업가능성 및 직업유지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낮더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사회 내 성공적인 적응으로의 과정이라는 취업욕구의 증진을 위해서도 장애인에게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우울 증세와 취업욕구는 양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진미정, 2003),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른 취업욕구의 변화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은 양방적인 관계보다는 장애인의 우울 자체, 또는 장애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우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들의 우울수준은 성별, 연령, 직업유무, 장애수준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Cook, 2003; 권복순·박현숙, 2005; 권현수, 2010; 전지혜, 2010),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및 낮은 사회적 지지(Honey, et al., 2011),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차별(전지혜, 2010)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의 우울수준은 이러한 차별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이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신체장애, 중도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임금수준, 상용근로자 여부,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취업의지 등 여러 결정요인 중 하나로 장애인의 우울 요인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며, 취업에 관한 장애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인의 취업상태나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 등의 심리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더 많았다(전이상, 2002; 이형열, 2007; 김영일·허유성, 2009; 조민수, 2009; 박태경, 2010; 이현경, 2011; 정원철·박윤정, 2012).

우울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나 “정신건강” 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우울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 중의 하나로서, 전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정상적인 범주에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징을 갖는다(Lazarus, 1976). 우울은 정신병리에 있어서의 감기라 할 수 있을 만큼 친숙한 것이라는 Seligman(1974)의 주장처럼,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장애인의 신체건강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신건강문제를 간과하게 된다면, 장애인이 느끼는 우울감은 자신의 욕구가 무가치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좌절감으로 변하여 욕구저하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감, 우울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행동방식, 이들에게 주어지거나 본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의 관계는 중요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다양한 증상의 발현을 통해 다시 취업욕구를 포함한 여러 욕구를 저하시키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 우울감에 빠지고 사회의 고립을 부르는 악순환적인 고리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고리를 끊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숙고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충분하다.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취업욕구를 제외하고서도 욕구나 장애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문헌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이라는 전

국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욕구를 향상시키고 적응으로서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장애인의 우울과 심리사회적 자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감은 취업욕구를 저해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stressor)인 여러 내적자극 또는 외적자극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반응을 말하며 물리적·환경적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elye, 1986).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과 이로 인한 우울감 자체를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건강 위험요인과 함께 개인적·사회적 자원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수준이나 질병발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울 등의 스트레스 요인의 효과를 변형, 수정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Pinneau, 1976; Rabkin & Struening, 1976; Dean & Lin, 1977; Gore, 1978; Turner, 1983; 차봉석 외, 1992). 예를 들어 자존감이 높을 경우 우울 수준이 낮으며, 자기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삶의 여건을 자신의 행동이나 자원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한 내적 통제성향을 가진 경우 우울 증세가 낮다. 권정혜(2002)는 우울증 집단이 비우울증 집단보다 더 높은 성취 지향적 역기능적 태도와 타인 의존적 역기능적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을 많이 경험하여 우울에 대한 영향을 받을수록 정서적으로 타인 의존적인 역기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불편감을 느끼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악순환적인 대인관계에 빠지게 되면서 사회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자기패배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만성화된다고(Coyne, 1976; 권정혜, 2002). 이처럼 기존

의 선행연구는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장애인의 우울의 변화에 관한 연구나 다양한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Kieselbach, 2003)나 인지행동치료(Creed, Machin, & Hicks, 1999)와 같은 기법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문제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적응을 촉진시키는 완충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Cobb, 1976),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는 카타르시스, 자기통찰, 안심감과 신뢰감, 자신감의 향상 등을 통한 정신적 문제를 완충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우울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Munakata, 1996; 최미경·이영희, 2010 재인용).

물론 같은 우울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행동방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취업욕구도 달라질 수 있다(Cohen & Wills, 1985). 즉, 장애인이 스스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인지하거나, 가족 및 형제자매와 친구들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낀다면 우울감을 느끼는 장애인도 다양한 우울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재취업욕구, 그 중에서도 특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통해 취업욕구를 향상시키고 취업과 직업유지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의미가 있다. 반면 우울수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실제로 제공받는 물질적 도움이나 보살핌 서비스의 횟수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수준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중증일 확률이 높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정도가 심각한 상태일수록 주변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도움 정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rolin, 1972; 이선우, 1997; 김기태 외, 1999; 고관우,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양수정 외, 2013).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일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수준의 장애 정도라면 이러한 장애인이 우울함을 크게 느낄수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횟수도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상태와,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 실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취업욕구의 변화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회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을 장애인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취업욕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심리사회적 자원은 외적 자원이자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내적 자원이자 심리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으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도록 돕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지원, 즉, 친밀감, 안정과 애정, 소속감, 돌봄과 보살핌, 정보제공, 물질적 도움과 지원 등을 통해 자존감과 안정감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지원을 말한다(권석만, 2003).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중반 예방 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한 개인이 그의 주변을 둘러싼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친한 친구, 가족, 동료, 교사 등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우울증을 유발하는 생활사건을 차단시켜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하여 그 결과 재활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폭시킬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인지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와 실제로 받는 사회적 지지(enacted social support)로 구분하기도 한다(Barrera, 1986; Karasek & Theorell, 1990).

첫 번째로 “인지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는 자신이 이용 가능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회적 지지이다.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간접적인 사회적 지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초해 사람이 믿어주는 원조로, 우울할 때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기 기대하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다. 개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황 및 태도의 변화 등의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enacted social support)”는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물질적 도움 또는 보살핌 등의 실제적인 지지의 여부나 횟수를 일컫는다(Procidano & Heller, 1983; 유영선, 2012 재인용).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은 장애인의 심리적

갈등을 완충시키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의 개념으로 알려진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과 함께,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를 심리사회적 자원에 포함하여 장애인이 주변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때의 취업욕구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심리사회적 자원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아 개념의 평가적, 정서적 측면을 말한다. 평가는 대상의 유용성과 도구적 가치에 근거를 둔 인지적 반응인 반면, 감정은 평가의 크기나 방향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실제적 가치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만족, 또는 선호하는 반응을 말한다(Wells & Marwell, 1976).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중 어느 하나에만 비중을 둔 것과 두 요소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구분되므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일상적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 많이 우울해지며, 그 결과 무기력감으로 인한 욕구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Beck, 1979; Brown & Harris, 1978; Campbell, Chew, & Scratchley, 1991; 이상준·안수영, 2011 재인용). 장애인은 장애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며,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장애인이 우울함을 느낄수록 이들의 취업욕구는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으면 장애인의 취업욕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4 절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취업욕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화된 연구들이며,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취업이나 취업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취업욕구 관련 연구 또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자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자원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사하게 존재하는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류진혜·김태성(1998)은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활용함을 설명하였다. 신명호(2002)는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취업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임효순·이홍직(2009)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 요인을 꼽은 바 있다. 김지윤(2012)은 제주지역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고, 정민선(2012)은 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적 자원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인식하는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취업욕구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장애를 수용할 때 취업욕구가 촉진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주변의 환경적 자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장애를 수용할 수 없다면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우므로 본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보다는 장애를 수용하여 내적 심리사회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울 만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전문적 상담 개입 등의 실질적인 사회적인 지지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재윤·장은영·신희천(2006)은 본래 심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취업 상태의 사람들보다 본래 자아존중감이 낮았거나(Hoare & Machin, 2004), 정신건강이 나쁘거나 우울수준이 높다는(Patterson, 1997; Hammarstrom & Janlett, 1997)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정신건강이 좋거나 우울수준이 낮으면 취업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취업욕구는 변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볼 때,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장애인은 스스로가 인지하거나 실제로 제공받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우울한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질 것이며, 여전히 우울감을 느끼는 장애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의 변화가 취업욕구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취업률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 5 절 스트레스 과정 모델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이론과 모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먼저 설명하고, 스트레스로서의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스트레스의 결과인 장애인의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 모형으로서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 → 인지적 평가 → 대처전략 → 적응’에 이르는 개념 간의 인과적 구조를 제공하고 대처를 설명한다. 여기서 대처란 결과에 관계없이 스트레스적 요구를 다스려 나가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며, 대처자원은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이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자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자원과 환경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성자원에는 신체적 자원, 심리적 자원, 유능성 등이 포함되며 환경적 자원은 사회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 등을 말한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자원은 건강과 에너지이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긍정적인 신념은 심리적 자원에 해당한다.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에는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며 물질적 자원에는 돈이나 돈으로 구입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되는데, 사회적 자원은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또한 장애인

개인의 대처양식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소유한 대처자원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다르게 활용된다(Cohen & Wills, 1985).

개인은 여러 내·외적 자극에 대응하여 신체·정신적 행동반응을 보인다. 개인은 개별적 성향, 능력, 또는 주변에서 제공되는 지지나 자원의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요구들을 관리하고, 감소시키거나 또는 견디는 등의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최세나, 2009).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stressor)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행동반응으로 취업욕구의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취업욕구의 고취는 취업을 향한 과정으로의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적응과정으로의 취업을 위한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대한 중요성과 장애인 취업의 실태, 이로 인한 장애인의 우울감 형성, 우울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만한 심리사회적 자원 제공의 정도와 취업욕구 증진이라는 일련의 회복 과정은 각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Pearlin et al.(1981)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스트레스 과정을 네 가지 주요개념으로 설명한다. 첫째, 스트레스 환경에 관한 개념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이 스트레스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상태를 스트레스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개념은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객관적 사건과 객관적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에 해당한다. 셋째, 장애인의 우울수준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outcome)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욕구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개념은 매개체(mediator)로, 스트레스원(stressor)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과 스트레스 결과(outcome)인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요인이며(이현지, 2005),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 등의 외적자원(external resource)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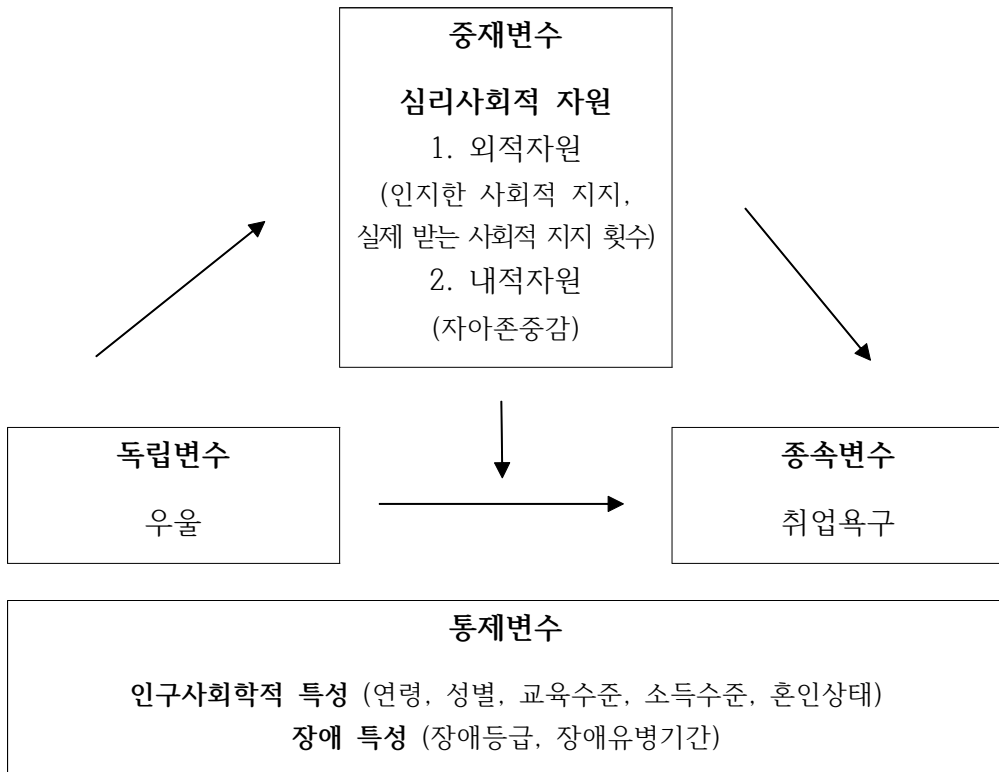
대처전략 등의 내적자원(internal resource)이 주로 거론된다(진혜민, 2013).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치매환자, 알츠하이머환자, AIDS 환자, 노인과 가족부양자, 발달장애인과 가족,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 정신장애인 자녀, 청소년 자살생각 등의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Pearlin et al., 1981; 윤현숙·차홍봉·조양순, 2000; 김희정, 2000; Leblanc et al., 2004; Lee et al., 2006; 김보미, 2007; Sun, F. et al., 2009; 조상욱, 2013; 진혜민, 2013).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같은 양이나 같은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즉, 같거나 비슷한 양의 스트레스이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대처방식이나 개별적 인지 과정에 따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스트레스는 해당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떤 과정으로 인지하는지와 개인이 활용하려는 자원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강광순, 2010).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지각된 스트레스로서의 개인이 느끼는 우울의 수준이 대처 결과로서의 취업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 모델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공통점은 심리사회적 자원이 장애인 개인의 우울 스트레스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반대로 심리사회적 자원의 부재가 장애인 개인의 우울 스트레스의 수준을 악화시켜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서는 우울이라는 스트레스가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설명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우울수준 또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취업욕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장애인이 인식하는 우울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본 연구에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모델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검증하는 각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이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정도와 심리사회적 자원(인지한 사회적 지지,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과, 심리사회적 자원이 존재할 때 우울수준과 취업욕구의 관계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설 모두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성인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성인기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가?

연구가설 4.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연구가설 4.2. 성인기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연구가설 4.3.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연구문제 5.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5.1.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2.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3.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10년에 조사하여 구축한 2011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6차년도 부가조사인 “장애인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는 전국 대표성을 지닌 종단적 패널 조사(panel survey)이다. 이는 국내 가구 단위로는 가장 큰 표본 규모로, 특히 장애인 관측치가 타 조사에 비해 많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오욱찬, 2011). 장애인 부가조사는 2008년 3차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지지 척도가 새로 추가된 2011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 6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장애인 부가조사에 응답한 729명의 가구원 중 당시 연령이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성인으로 선정하였는데, 법정근로가능연령이 만 18세~64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성인장애인의 연령을 법정근로가능연령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0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취업욕구

본 연구에서 취업욕구란 사람이 직업을 얻거나 얻기 위해 바라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현재 소득목적의 취업여부 및 향후 취업희망에 관한 질문에 ‘현재 취업중’, ‘취업을 원함’, ‘취업을 원하지 않음’으로 세 가지 응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취업중’인 응답자는 취업욕구가 있으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취업상태가 아닌 응답자 중 ‘취업을 원함’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와 함께 ‘취업욕구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으며, 반면 현재 취업중이지도 않으며 ‘취업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취업욕구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다루게 될 ‘우울’은 장애인이 인지하여 우울함을 느끼는 기분으로, ‘슬픔, 불행감,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한국복지패널은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활용한 설문지 문항으로 응답자가 인지한 우울의 수준을 조사하였다(Radloff, 1977). 한국복지패널에서 우울수준과 자아존중감은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우울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 간 심리상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우울척도는 “식욕이 없음.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의 총 11문항으로,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1. 극히 드물다, 2.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로 대답할 수 있다. 분석 시 ‘비교적 잘 지냈

다’ , ‘불만 없이 생활함’ 등의 2가지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우울척도의 각 문항은 1점으로 계산되며 총 CESD 점수 * 20/11 으로, 우울수준의 전체 문항의 점수 범위는 0~60점이다. 이는 총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 α 계수는 .880로 나타났다.

3. 중재변수(intervening variable): 심리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중재변수는 심리사회적 자원(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며,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심리사회적 자원은 외적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내적 심리사회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으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외적 심리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다시 조사대상자인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로 나뉜다. 장애인이 느끼는 우울감인 ‘인지한 우울’의 정도는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우울감이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심리사회적 자원의 정도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은 장애인이 높거나 낮게 느끼는 우울수준에 따라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3.1. 사회적 지지

Barrera(1986)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자신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와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enacted support)로 구분된다. 두 개념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이용 가능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지지이며,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지지이다.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와는 달리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태도의 변화와 같은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Barrera, 1986; Karasek & Theorell, 1990; Procidano & Heller, 1983).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실제로 받는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먼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Zimet, et al.(1988)가 개발한 다면적 척도(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최희수(1999)가 재구성한 한 것으로,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조사에 처음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친구 등의 주변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도우려고 애쓰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1~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10개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즉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7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심리사회적 자원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자원’은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횟수”로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자원의 횟수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물질적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보살핌은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제외한 전화통화, 가사지원, 자녀양육, 보일러 점검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실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지난 1

개월 동안 부모·자녀·형제자매·친척, 친구 및 동료,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기타, 활동보조인 등 11개의 분야에서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물질적 도움(material help)과 보살핌 도움(care help)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유(1)/무(0) 여부를 측정하였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음’의 경우는 0회로 계수하였으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의 경우는 각각 11개의 항목에서 도움을 받은 횟수를 합산한 점수를 측정변수로 센터링(centering)을 취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3.2. 자아존중감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경우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자아존중감 척도로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점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 4=항상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은 각 문항 당 1점부터 4점까지 총 10문항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항목의 경우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조사 시점 이전 일주일의 기분상태를 묻는 우울 척도와는 달리,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합산 점수에 센터링(centering)을 취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에 응답한 연구대상은 330명이며,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52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우울수준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성별, 연령, 지역, 가구소득,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장애등급,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발생 시기, 중증장애여부, 중복장애여부, 장애인관련 제도적인 요인 등의 변수들(이선우, 1997; 강동욱, 2005; 류정진·나운환, 2006; 오세란, 2008; 조민수, 2009; 공혜경; 2010)을 고려하였으며, 이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조사대상자 모두는 장애인이므로, 장애에 관한 요인(장애등급, 장애유병기간)도 포함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할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성별: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는 (1), 여성일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인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여부 항목에 응답한 성인 장애인은 총 404명이며, 남성은 245명, 여성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연구 대상자들의 생물학적 연령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자료에서는 응답자에게 연령 대신 태어난 연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 “태어난 해”를 조사한 변수에서 해당 조사년도인 2011년보다 한 해 전인 2010을 뺀 값으로, 새로운 연속변수인 ‘연령’ 변수를 생성하였다.

교육수준: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의 학력 분포를 감안할 때, 많은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미만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자료에서는 1.미취학(만 7세 미만), 2.무학(만 7세 이상),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전문대학, 7.대학교, 8.대학원(석사) 9.대학원(박사) 총 9개로 조사된 교육수준 변수를 고등학교 졸업 미만(0)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1)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표본의 50%를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빈곤선 120% 이하 가구)에 할당하고,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를 나머지 50%로 할당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권태연, 2010). 본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1)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0)로 구분하여 조사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혼인상태: 혼인상태 변수는 0.비해당(17세 이하) 1.유배우 2.사별 3.이혼 4.별거 5.미혼(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6.기타(사망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혼인상태 비해당 응답자는 17세 이하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어수봉, 1996; 이선우, 1997; 유동철, 2000)에서도 알 수 있듯 본 연구에서도 유배우자(1)와 미혼 및 기타(0)라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1~6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급의 숫자가 커질수록 경미한 장애에 해당한다. 즉, 1급으로 갈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장애등급 변수는 그대로 연속형인 서열변수(ordinal variable)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장애인은 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또한, 국가보훈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의 경우 16명으로 나타났으나 장애등급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응답자는 결측치 처리 하였다. 즉, 장애등급은 1~6급인 등록 장애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유병기간: 분석을 위해 계산했던 연령 변수에서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처음으로 장애를 갖게 된 연령” 변수를 뺀 값으로 장애유병기간 변수를 산출하였다.

제 3 절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2011년 한국복지패널 6차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SPSS 19.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대상자인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성인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정도, 사회적 지지 및 취업욕구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진단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성인 장애인의 우울의 정도가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nominal type)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욕구 유무가 이분형(dichotomous type) 종속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우울수준을 독립변수로, 심리사회적 자원(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 실질적 사회적 지지의 횡수,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각각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인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주효과와 매개효과,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을 통제한 후 장애인의 우울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우울수준과 취

업욕구와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개변수 성립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1-4단계를 살펴보았다. 즉,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변수를 추가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지 4단계를 통해 성립조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와 3단계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2단계에서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장애에 관한 요인(장애등급, 장애유병기간)을 포함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는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단계 모델에서는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단계 모델에 중재변수인 심리사회적 자원 변수를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Baron & Kenny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를 바로 실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Mackinnon et al, 2007).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독립변수들의 단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만으로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경우 오차의 분산이 확률분포를 따라 종속변수가 어떤 확률을 갖느냐에 따라 분산이 변하게 되며, 이분 변수는 종속변수의 값이 0 또는 1이므로 오차의 값은 단 두 개의 값으로 고정된다(김태근, 2006). 이에 대해 Mackinnon et al.(2007)이 제시한 해결방안으로 로지스틱 분석에서 얻은 회귀계수를 표준화시켜 같은 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로는 Baron & Kenny가 제시한 매개효과 성립조건의 마지막 4번째 단계를 실행할 수 있으며 단순매개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Mackinnon et al., 2007).

마지막으로 성인 장애인의 우울 정도와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 실제 제공받는 사회적자원의 횟수, 자아존중감의 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수준 변수와 심리사회적 자원을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고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우울수준 * 사회적 지지 수준’, ‘우울수준 * 실질적 지지 횟수’, ‘우울수준 * 자아존중감 수준’의 세 상호작용항을 만들고 각각의 상호작용항이 취업욕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투입되는 독립변수와 중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 변수에서 변수들의 평균값을 빼주는 센터링(center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다음 [모형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형 1]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ln\left(\frac{p}{1-p}\right) = \alph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b_{12}X_8X_9 + b_{13}X_8X_{10} + b_{14}X_8X_{11} + e$$

p :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

<통제변수>

D_1 : 성별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D_4 : 소득수준 D_5 : 혼인상태
 X_6 : 장애등급 X_7 : 장애유병기간

<독립변수>

X_8 : 우울

<중재변수>

X_9 : 사회적 지지

X_{10} :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X_{11} : 자아존중감

<상호작용변수>

X_8X_9 : 우울 * 사회적 지지 수준

X_8X_{10} : 우울 * 실질적 지지 횟수

X_8X_{11} : 우울 * 자아존중감 수준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중 일반우도검정(Generalized Likelihood-ratio Test)을 통해 얻어진다. 이 때 우도(Likelihood)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추정될 모형이 자료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 알기 위한 척도로 관례적으로는 우도의 log 값에 -2를 곱한 값(-2Log-Likelihood)을 사용한다.

분석모형의 모형적합도는 Model Chi-Square 값과 Hosmer & Lemeshow 검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Model Chi-Square 값은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회귀모형의 -2LL값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의 -2LL 값과의 차이이며, 카이제곱분포 표를 확인하여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두 모형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김태근, 2006).

Hosmer & Lemeshow 검정의 Chi-square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의확률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종속변수와 실제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 값이 유의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p값이 0.05보다 큰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등록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등급, 장애유병기간 등 장애관련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성 245명(60.6%), 여성 159명(39.4%)으로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체 응답자 중 10대가 4명(0.9%), 20대가 25명(6.2%), 30대는 52명(12.9%), 40대가 94명(23.3%), 50대는 139명(34.4%), 60대가 90명(22.3%)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미만과 이상인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 집단(1)은 전체 중 총 183명(45.3%), “고등학교 졸업 미만” 집단(0)은 총 221명(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1)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0)로 구분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는 215명(53.2%), 일반가구는 189명(46.8%)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유배우자로 응답한 사람은 227명(56.2%)인 반면, 미혼 및 기타는 177명(43.8%)로 나타나 유배우자인 조사대상자가 미혼 또는 사별, 이혼, 별거, 사망 등의 혼인상태인 사람보다 12.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1)	245	60.6
	여성(0)	159	39.4
연령 (연속변수)	10대	4	0.9
	20대	25	6.2
	30대	52	12.9
	40대	94	23.3
	50대	139	34.4
	60대	90	22.3
교육수준	고교졸업이상 (1)	183	45.3
	고교졸업미만(0)	221	54.7
소득수준- 중위소득60%기준	저소득층가구(1)	215	53.2
	일반가구(0)	189	46.8
혼인상태	유배우자(1)	227	56.2
	미혼 및 기타(0)	177	43.8

<표 5-2>는 통제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닌 장애관련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장애등급은 중간 등급인 3급이 103명(2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유병기간은 평균 21.4년으로 나타났다.

<표 5-2> 조사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장애등급(1~6급)	1급	57	14.8
	2급	67	17.4
	3급	103	26.8
	4급	36	9.3
	5급	47	12.2
	6급	75	19.5
장애 유병기간(년)	최소값	2.0	
	최대값	64.0	
	평균	21.44	
	표준편차	15.86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5-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취업욕구가 있는 사람”은 221명(54.7%), “취업욕구가 없는 사람”은 183명(45.3%)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조사대상자의 취업욕구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취업욕구	취업하고 싶음	221	54.7
	취업하고 싶지 않음	183	45.3

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될 독립변수, 중재변수의 기술통계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표 5-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며, 중재변수는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총합,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 인지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세 항목의 심리사회적 자원이다.

<표 5-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독립 변수	우울	10.291	10.619	112.746	0.0	50.9	1.250	1.224
	사회적 지지	21.141	7.432	55.228	10.0	49.0	-.338	-.513
중재 변수	실질적 지지 횟수 (물질적+보살핌)	5.864	12.820	164.361	0	127	5.078	38.225
	LN ¹⁾	-.0450	2.122	4.504	-2.3	4.8	.222	-1.360
	자아존중감	18.167	4.534	20.559	6.0	27.0	-.432	-.380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0~60점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10.291점으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및 백분율로는 전체 중 60.3%인 243명이 우울 척도의 10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우울 척도에서 임상적 수준(clinical level)으로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 16점 이상은 102명(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1) LN 실질적 지지 횟수 : 자연로그를 취한 실질적 지지 횟수 값

기술통계 분석 결과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0점부터 39점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0~10점 미만은 5.7%, 10~20점 미만은 35.6%, 20~30점 미만은 41.8%, 30점 이상의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8%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20~30점 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수준의 전체 평균은 21.141점으로,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중위수인 25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심리사회적 자원에 포함된 변수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의 횟수’ 중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수는 169명으로, 즉,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하거나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조사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4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횟수는 1회부터 127회까지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line, 2011). <표 5-4>에서 주요 변수인 독립변수와 중재변수, 종속 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의 왜도(5.078)와 첨도 값(38.225)이 높게 나타나 정규성에 위배되었다. 실질적 지지 횟수 변수를 생성하여 로그값을 취한 결과, 왜도(0.222)와 첨도(-1.360)의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재변수인 자아존중감의 경우 전체 평균은 18.167점으로 조사대상자인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40점 만점의 절반인 20점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6점부터 27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제 3 절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0.7 이상 높게 나온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김태근, 2006) 본 연구결과에서는 주요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을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는데(Myers, 1999)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요 변수들의 VIF가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 간의 관계에서는 연령과 장애유병기간을 제외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장애등급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기 장애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 졸업미만 집단이, 저소득층 가구가,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장애 정도가 더 심각할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수준은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 취업욕구에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며, 취업욕구 또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는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의 경우, 혼인상태와 장애유병기간을 제외한 모든 투입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의 취업욕구 유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성별($r=.244, p<.01$), 연령($r=-.192, p<.01$), 고등학교 졸업 기준의 교육수준($r=.169, p<.01$), 중위소득 60% 기준의 소득수준($r=-.275, p<.01$), 장애등급($r=.302,$

$p < .01$),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r = -.267, p < .01$),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r = .206, p < .01$),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r = -.191, p < .01$), 자아존중감($r = .197, p < .01$)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취업욕구가 있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일반가구에 해당하는 집단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취업욕구가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이 1급인 중증에서 6급인 경증으로 장애 정도가 약해질수록,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나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와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횟수, 즉 물질적인 도움과 보살핌 도움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없는 것($r = -.191, p < .01$)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생성한 “로그를 취한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횟수” 변수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욕구($r = -.320, p < .01$)를 포함한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으며, 로그를 취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 동안 장애인이 제공받은 실질적 지지 횟수가 많아질수록 취업욕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제시된 <표 5-5>와 같다.

<표 5-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장애등급	장애유병기간	우울	사회적 지지	실질적 지지횟수	로그취한 실질적 지지횟수	자아존중감	취업욕구
성별	1												
연령	-.022	1											
교육수준	.112*	-.412**	1										
소득수준	-.095	.006	-.153**	1									
혼인상태	.003	.388**	-.018	-.258**	1								
장애등급	.106*	.109*	.105*	-.311**	.173**	1							
장애유병기간	-.021	.125*	-.192**	.170**	.012	-.162**	1						
우울	-.145**	.023	-.104*	.294**	-.206**	-.243**	-.050	1					
사회적 지지	.006	-.011	.187**	-.357**	.255**	.292**	-.133**	-.290**	1				
실질적 지지횟수	-.050	.035	-.039	.164**	-.039	-.169**	-.071	.148**	-.031	1			
로그취한 실질적 지지횟수	-.118*	.097	-.136**	.311**	-.085	-.326**	.036	.228**	-.215**	.665**	1		
자아존중감	.012	.044	.106	-.393**	.253**	.319**	.021	-.482**	.269**	-.150**	-.228**	1	
취업욕구	.244**	-.192**	.169**	-.275**	.038	.302**	-.063	-.267**	.206**	-.191**	-.320**	.197**	1

* p<.05, ** p<.01, *** p <.001

제 4 절 가설 검증

제 4 절에서는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본 전제가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점도 및 히스토그램으로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을 선택하여 검사한 결과 그 수치가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 첫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가?

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2] 우울모형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e$$

p :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

<통제변수>

D_1 : 성별 (0=여성, 1=남성)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0=고등학교 졸업 미만, 1=고등학교 졸업 이상)

D_4 : 소득수준 (0=중위소득 60% 기준 일반가구, 1=저소득가구)

D_5 : 혼인상태 (0=나머지(이혼, 별거, 사별, 기타), 1=유배우자)

X_6 : 장애등급

X_7 : 장애유병기간

<종속변수>

Y : $\ln\left(\frac{p}{1-p}\right)$

<독립변수>

X_8 : 우울

[모형 2]에서는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변수와 장애관련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우울모형의 -2LL 값이 426.319이며, F값 101.78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모형의 Hosmer & Lemeshow 검정을 위한 Chi-Square 값은 12.183, 유의도는 0.143으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크므로 연구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모형을 통해 예측된 값과 실제값이 일치된 적중률은 7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Nagelkerke R^2 에 따른 이 모형의 설명력은 31.2%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은 낮아질수록,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저소득층 가구보다는 일반 가구가,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가 경미할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관련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장애인의 우울수준은 높아질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표 5-6>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2.676$, $p<.001$). 즉, 남성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승산은 여성보다 2.676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연령이 1단위씩 높아질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이 0.952배씩 감소하였다($\text{Exp}(B)=.952$, $p<.001$).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장애인들은 노화로 인한 중복장애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연령 증가에 따라 직무능력에 필요한 감각과 지각, 기억력, 지능, 학습능력 등이 감퇴하게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공통점은 이들이 등록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로 인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을 더 쉽게 느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에 따른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의 저소득층가구 집단이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일반가구 집단에 비해 0.501배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501$, $p<.01$).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줄어들수록 취업할 확률 또는 취업욕구가 감소하는 기존의 연구(손광훈·심미영·염동문, 2010)와 일치하는 결과다.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수준에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오혜경, 2002).

장애등급($\text{Exp}(B)=1.432$, $p<.001$) 역시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

구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가장 중중인 1급에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승산은 1.432배씩 증가하였다. 즉 장애의 정도가 중중에서 경중으로 변화할수록 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수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에 따른 장애인의 취업욕구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결과적으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성인기 장애인은 우울을 많이 인지할수록 이들의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text{Exp}(\beta) = .970, p < .05$). 장애인이 갖게 되는 심리적 증상 중 하나인 우울과 우울의 영향력에 대해 보고했던 기존의 연구들 (Kuypers & Bengtson, 1973; Miller, 1983; Park, 1999; Woo & Lee, 1998; Milberg, Strang, & Jakobsson, 2004; 최용민·원상숙, 2010; 정민선,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과 일치한다. 이는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과 같은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에도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감이 심화되면 보상될 수 있는 활동이나 행동 표현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사회적 참여와 보상을 감소시키는 등 정서상의 악순환이 반복된다(Lewinsohn, 1974). 직업을 갖고 싶다는 욕구는 사회 참여 욕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의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울감의 심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울감이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교육수준과 혼인상태, 장애유병기간은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6>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1] 우울모형		
		B	S.E	Exp(B)
통제변수	성별	.984	.241	2.676***
	연령	-.050	.013	.952***
	교육수준	.088	.264	1.092
	소득수준	-.691	.258	.501**
	혼인상태	.036	.273	1.036
	장애등급	.359	.079	1.432***
	장애유병기간	.005	.008	1.005
독립변수	우울	-.030	.012	.970*
상수		1.043	.714	2.839
-2Log-Likelihood		426.319		
Nagelkerke R ²		.312		
F		101.785***		
Hosmer & Lemeshow		Chi-Square: 12.183 p-value: .143		

* p<.05, ** p<.01, *** p<.001

2.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심리사회적 자원의 정도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각각의 심리사회적 자원(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우울을 독립변수로, 각각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른 회귀모형은 [모형 3]과 같으며, 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다.

[모형 3] 우울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text{[모형 3-1]} \quad Y_{(1)}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e$$

$$\text{[모형 3-2]} \quad Y_{(2)}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e$$

$$\text{[모형 3-3]} \quad Y_{(3)}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e$$

<통제변수>

D_1 : 성별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D_4 : 소득수준

D_5 : 혼인상태 X_6 : 장애등급 X_7 : 장애유병기간

<독립변수> X_8 : 우울

<종속변수>

$Y_{(1)}$ =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Y_{(2)}$ =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Y_{(3)}$ =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

먼저 [모형 3-1]에서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 값은 15.107로 이 값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228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형 3]에 포함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장애관련 변수들, 그리고 독립변수인 우울수준이 종속변수인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 변량의 22.8%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B = -.166$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1단위씩 높아질수록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0.166씩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모형 3] 속 독립변수인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아지면,

즉 장애인이 우울을 더 많이 느낄수록 종속변수인 스스로가 사회적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 소득수준, 혼인상태, 장애등급만이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소득수준이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집단이 일반가구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유배우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모형 3-2]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 F 값은 11.083으로 이 값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수정된 R^2 은 .174로 설명력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3-2]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 변량의 17.4%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1, p < .001$). 즉,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장애등급 만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사회적 지지의 횟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집단이 일반가구에 속한 집단보다 더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등급은 중증인 1급에서 경증인 6급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우울수준을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적합도 F 값은 19.842로 이 값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327로 이 값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모형 3]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변량의 32.7%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모형 3-3]에서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정도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beta = -.371$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한 단위인 1점씩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0.371점씩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본인이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 역시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만이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한국복지패널은 설문조사 당시 조사대상자가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한 상태를 답하도록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현재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응답한 것이므로, 우울함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2.3] 역시 지지되었다.

<표 5-7> 연구가설 2 :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변수		우울 → 인지한 사회적 지지			우울 → 실질적 지지 횟수			우울 → 자아존중감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	성별	-1.433	.705	-.093*	-.201	.206	-.046	-.734	.442	-.079
	연령	-.031	.036	-.047	.022	.011	.118*	.018	.023	.042
	교육수준	1.481	.779	.098	-.021	.228	-.005	.550	.483	.060
	소득수준 (저소득층/일반가구)	-3.170	.760	-.210***	.926	.222	.217***	-2.008	.490	-.221***
	혼인상태	2.605	.789	.172**	.029	.231	.007	.544	.498	.059
	장애등급	.680	.218	.153**	-.313	.064	-.250***	.481	.141	.175***
	장애유병기간	-.032	.022	-.068	-.008	.006	-.062	.020	.014	.071
독립	우울	-.120	.035	-.166***	.023	.010	.111*	-.180	.025	-.371***
상수		.328	2.041		-.177	.597		-2.321	1.353	
R ²		.244			.192			.345		
Adjusted R ²		.228			.174			.327		
R ² change		.023***			.010*			.116***		
F		15.107***			11.083***			19.842***		

* p<.05, ** p<.01, *** p<.001

3. 성인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 성인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성인기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3]은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중 세 번째 절차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와 일치한다. 즉,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우울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각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한 회귀모형은 [모형 4]와 같으며, 분석 결과는 각 가설의 차례대로 <표 5-8>로 정리하였다.

[모형 4]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4-1단계 회귀식>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e$$

<4-2단계 회귀식>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 b_6X_6 + b_7X_7 + b_8X_8 + b_{10}X_{10} + e$$

<4-3단계 회귀식>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 b_6X_6 + b_7X_7 + b_8X_8 + b_{11}X_{11} + e$$

p :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

<통제변수>

D_1 : 성별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D_4 : 소득수준

D_5 : 혼인상태

X_6 : 장애등급 X_7 : 장애유병기간

<독립변수> X_8 : 우울

<중재변수> X_9 : 사회적 지지

X_{10} :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X_{11} : 자아존중감

[모형 4-1]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중재변수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모형을 통해 예측된 값과 실제값이 일치된 적중률은 7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318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취업욕구 유무의 31.8%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1]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2LL$ 값은 424.180, Model Chi-Square 값은 103.923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Hosmer & Lemeshow 검정의 Chi-Square 값은 12.347, 유의도는 0.136으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크므로 완벽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우울수준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장애등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 장애등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text{Exp}(\beta) = 2.812$, $p < .001$)이 여성보다, 장애등급의 경우 1급에서 6급으로 경미한 등급에 해당할수록($\text{Exp}(\beta) = 1.411$, $p < .001$) 취업욕구가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은 높아질수록 0.952배씩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이 감소하며($\text{Exp}(\beta) = .952$, $p < .001$), 소득수준은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가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0.542배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ext{Exp}(\beta) = .542$, $p < .05$).

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이 중재변수인 인지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두 번째 모형인 [모형 4-2]는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 횟수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횟수를 중재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4-2]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중재변수는 종속변수인 취업욕구 유무의 변동 중 33.7%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모형을 통해 예측된 값과 실제값이 일치된 적중률은 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2LL의 값은 416.675로 나타났고, F값은 111.429로 이는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osmer & Lemeshow의 Chi-Square 값은 7.358이었으며 유의확률은 0.499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제변수는 성별과 연령, 장애등급 만이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우울수준은 남성이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여성의 2.648배였다. ($\text{Exp}(\beta) = 2.648$, $p < .001$), 연령은 1단위씩 높아질수록 0.955배씩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beta) = .955$, $p < .001$). 장애등급은 중재변수인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취업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장애등급이 1등급인 중증에서 6등급인 경증으로 1단위씩 변화할수록 취업하고 싶은 욕구의 승산은 1.359배씩 증가하였다 ($\text{Exp}(\beta) = 1.359$, $p < .001$).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지지의 횟수가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과 장애인의 취업욕구 간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변수로 투입된 제공받은 실질적인 지지의 횟수가 한 단위씩 변화할 때마다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0.828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4-2]에서는 매개효과가 있을 가능성의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세 번째 모형인 [모형 4-3]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중재변수로 투입되어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중재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모형 4-3]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LL의 값은 324.028이었으며, F값은 92.562로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의 Chi-Square는 8.224, 유의도는 0.412로, 기준 유의수준인 $p < .05$ 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확률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의 취업욕구 간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1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이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1.07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text{Exp}(B) = 3.628$, $p < .001$), 연령($\text{Exp}(B) = .923$, $p < .001$), 소득수준($\text{Exp}(B) = .361$,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과 혼인상태, 장애등급, 장애유병기간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성별이 남자인 경우 취업할 욕구가 있을 승산이 여자인 경우보다 3.628배 더 높았으며, 연령이 1년씩 증가할수록 취업하고자 할 승산은 0.923배씩 감소하였다.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0.361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감소하지만,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취업욕구가 있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 5] 통합모형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b_{11}X_{11} + e$$

p :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

<통제변수>

D_1 : 성별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D_4 : 소득수준 D_5 : 혼인상태

X_6 : 장애등급 X_7 : 장애유병기간

<독립변수> X_8 : 우울

<중재변수> X_9 : 사회적 지지 X_{10} :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X_{11} : 자아존중감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던 [모형 5]는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에서 각각 심리사회적 자원이 장애인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로,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 둘째,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횟수,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따로 확인했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횟수만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5]는 통합모형으로, 각 중재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들과 우울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중재변수인 세 가지 심리사회적 자원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9>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모형의 -2LL 값은 317.161이었으며, F 값은 99.429로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Chi-Square 값 역시 12.069로 유의확률은 비유의적이었으므로 통합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p = .148$). 통제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이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취업욕구가 3.461배 높은 승산을 나타냈다($p < .001$). 또한 연령은 1단위씩 증가할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0.926배씩 낮아졌다($p < .001$). 소득수준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집단이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일반가구 집단보다 0.44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모형 5]의 실질적 지지 횟수가 취업욕구에 미치는 매개효과 성립조건에 대해 여전히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함을 많이 인지한 성인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취업욕구는 저하되며, 실질적 지지횟수가 1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취업욕구가 있을 승산은 0.833배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중재변수 중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우울수준이 취업욕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기 위한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였다. 반면, 심리사회적 자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세 항목으로 나뉘었던 심리사회적 자원 중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횟수만이 취업욕구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재변수 중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의 횟수”만이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가정 1,2,3 단계가 모두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8> 연구가설 3 : 심리사회적 자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각 모형의 매개효과 성립조건)

		모형4-1: 우울, 인지한 사회적 지지 → 취업욕구			모형4-2 : 우울, 제공받은 실질적 지지 횟수 → 취업욕구 (τ')			모형4-3 : 우울, 자아존중감 → 취업욕구			모형5 : 우울, 심리사회적 자원 → 취업욕구		
		B	S.E	Exp(β)	B	S.E	Exp(β)	B	S.E	Exp(β)	B	S.E	Exp(β)
통계 변수	성별	1.034	.244	2.812***	.974	.244	2.648***	1.289	.284	3.628***	1.242	.289	3.461***
	연령	-.049	.013	.952***	-.046	.013	.955***	-.080	.017	.923***	-.077	.017	.926***
	교육수준	.050	.266	1.052	.081	.268	1.084	-.261	.307	.771	-.262	.311	.770
	소득수준	-.612	.264	.542*	-.529	.267	.589	1.018	.324	.361**	-.822	.343	.440*
	혼인상태	-.035	.278	.965	.026	.277	1.026	-.390	.319	.677	-.435	.331	.647
	장애등급	.344	.079	1.411***	.307	.081	1.359***	.171	.093	1.186	.123	.096	1.130
	장애유병기간	.005	.008	1.005	.003	.008	1.003	-.002	.009	.998	-.003	.009	.997
독립 변수	우울	-.028	.013	.973*	-.027	.013	.973*	-.025	.017	.975	-.023	.017	.978
중개 변수	사회적 지지	.026	.018	1.026							.007	.021	1.007
	실질적 지지 횟수				-.189	.061	.828**				-.183	.070	.833**
	자아존중감							.052	.036	1.053	.046	.037	1.047
상수		1.058	.716	2.880	1.038	.721	2.822	4.071	1.008	58.599***	1.078	1.013	59.048***
-2LL		424.180			416.675			324.028			317.161		
Nagelkerke R ²		.318			.337			.349			.371		
F		103.923***			111.429***			92.562***			99.429***		
Hosmer & Lemeshow		Chi-Square: 12.347 p-value: .136			Chi-Square: 7.358 p-value: .499			Chi-Square: 8.224 p-value: .412			Chi-Square: 12.069 p-value: .148		

*p<.05, ** p<.01, ***p<.001

4.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과 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4.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가?

연구가설 4.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연구가설 4.2. 성인기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연구가설 4.3.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각 중재변수의 매개효과 성립조건을 검증한 결과, 3가지의 중재변수 중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의 횡수” 만이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가정 1,2,3 단계를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마지막 4단계로 회귀계수를 표준화(Mackinnon & Dwyer, 1993)하였다. Mackinnon & Dwyer가 제시한 표준화 방법의 식은 다음 [모형 6]에 제시된 것과 같다.

[모형 6] 표준화 방법

Model 1 : $X \rightarrow Y ; Y = b1 + \tau X + e$

Model 2 : $X \rightarrow Y' ; Y' = b2 + \tau' X + bM + e$

① 각 Model의 분산(variance)과 표준편차($\sqrt{variance}$: S.D)를 구한다.

$variance(y) : \tau^2 * variance(X) + \frac{\Pi^2}{3}$

$variance(y') : \tau'^2 * variance(X) + b^2 * variance(M) + 2*c*b*cov(X,M) + \frac{\Pi^2}{3}$

② 각 회귀계수를 위에서 구한 표준편차로 나뉜다.

· 표준화된 τ 값 : $\tau / S.D(y)$

· 표준화된 τ' 값 : $\tau' / S.D(y')$

· 표준화된 b 값 : $b / S.D(y')$

위 표준화 방법에서 제시된 식을 통해 회귀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의 차이인 $\tau - \tau'$ 를 살펴본 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실시한 Sobel test의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의 매개효과 검증(표준화계수)

변수			X→M		M→Y		Sobel test	
X (독립 변수)	M (매개 변수)	Y (종속 변수)	B	S.E	B	S.E	Test Statistics	p-value
우울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	취업욕구	-0.0142	.00686	-0.0998	.03223	1.7208	0.0853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0.0163)은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를 추가했을 때 그 영향력(-.01427)이 감소하였다. Mackinnon & Dwyer(1993)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표준화한 계수로 인한 두 값이 일치하거나 차이가 거의 없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총효과(total effect)와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의 차이는 0.002이며, 회귀계수 식을 통해 계산된 매개효과 회귀계수인 ab 는 0.002로,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총효과와 직접효과의 차이값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향하는 회귀계수와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향하는 회귀계수의 곱과 일치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 계수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의 검증값은 1.7208로 나타났으나, 이 값은 two tailed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0.0853),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4.2]은 기각되었다.

5.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과 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5.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5.1.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2.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3.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모형 7] 상호작용 효과

<7-1단계 회귀식: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2}X_8X_9 + e$$

<7-2단계 회귀식: 우울과 실질적 지지 횟수의 상호작용 효과>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10}X_{10} + b_{13}X_8X_{10} + e$$

<7-3단계 회귀식: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ln\left(\frac{p}{1-p}\right) = a + b_1D_1 + b_2X_2 + b_3D_3 + b_4D_4 + b_5D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11}X_{11} + b_{14}X_8X_{11} + e$$

p :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

<통제변수>

D_1 : 성별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D_4 : 소득수준 D_5 : 혼인상태

X_6 : 장애등급 X_7 : 장애유병기간

<독립변수>

X_8 : 우울

<중재변수>

X_9 : 사회적 지지

X_{10} : 실제 제공받는 실질적 지지 횟수

X_{11} : 자아존중감

<상호작용변수>

X_8X_9 : 우울 * 사회적 지지 수준

X_8X_{10} : 우울 * 실질적 지지 횟수

X_8X_{11} : 우울 * 자아존중감 수준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이 장애인의 취업욕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과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 자아존중감 수준이 포함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5-10>과 같다. Nagelkerke R^2 에 따른 [연구가설 5.1]의 설명력은 32.0%였으며, [연구가설 5.2]의 설명력은 33.7%, [연구가설 5.3]의 설명력은 35.1%로 나타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주효과 모델보다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변수의 완충효과(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중재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가설검증을 위해 각 중재변수를 통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모형별로 따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중재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모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text{Exp}(B)$ 은 종속변수의 승산에 대한 변화량이 아닌 변화 배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 자아존중감 모두 $\text{Exp}(B)$ 이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에 대한 각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는 거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심리사회적 자원 전체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세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한 통합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처럼, 모든 상호작용항 변수의 $\text{Exp}(B)$ 이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조절효과가 있는 상호작용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우울수준과 취업욕구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사회적 지지 척도,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횡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가설 5]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5-10> 연구가설 5 :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가설 1: 우울 → 취업욕구			가설 5.1: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5.2 : 실질적 지지 횟수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5.3 :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변수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통제	성별	.984	.241	2.676***	1.023	.245	2.782**	.974	.244	2.650***	1.257	.286	3.514***
	연령	-.050	.013	.952***	-.050	.013	.952***	-.046	.013	.955***	-.081	.018	.922***
	교육수준	.088	.264	1.092	.042	.267	1.043	.080	.268	1.084	-.267	.307	.766
	소득수준	-.691	.258	.501**	-.600	.264	.549*	-.530	.267	.588*	-1.013	.324	.363**
	혼인상태	.036	.273	1.036	-.061	.279	.941	.025	.277	1.025	-.398	.319	.672
	장애등급	.359	.079	1.432***	.343	.079	1.409***	.307	.081	1.359***	.169	.093	1.184
독립	장애유병기간	.005	.008	1.005	.005	.008	1.005	.003	.008	1.003	-.001	.009	.999
	우울수준	-.030	.012	.970*	-.032	.013	.969*	-.027	.013	.974*	-.030	.018	.970
중재	사회적지지				.028	.018	2.975						
	실질적지지횟수							-.189	.061	.828			
	자아존중감										.055	.037	1.057
조절	우울 * 중재변수				-.001	.002	.999	-.001	.006	.999	-.003	.003	.997
	상수	1.043	.714	2.839	1.090	.718	2.308	1.039	.722	2.827	4.116	1.015	61.332***
-2Log-Likelihood		426.319			423.243			416.663			323.240		
Nagelkerke R ²		.312			.320			.337			.351		
Chi-square		101.785***			104.860***(df=10)			111.441***(df=10)			93.349***(df=10)		
Hosmer & Lemeshow		Chi-Square: 12.183 p-value: .143			Chi-Square: 18.602 p-value : .017			Chi-Square: 6.491 p-value : .592			Chi-Square: 8.294 p-value : .405		

*p<.05, ** p<.01, ***p<.001

제 6 장 결 론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Pearlin et al.(1981)이 제시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19세 이상 64세 미만인 성인기의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이들의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한 사회적 지지,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횟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접목하면,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취업욕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질서, 제도, 규범, 가치관, 태도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으며 만성적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우울감에 취약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urner & McLean(1989)도 장애인의 우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서의 반응일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을 중재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Turner R., & McLean A., 1989).

이처럼 장애인의 우울은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결과물로 우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라는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한 증상들, 복합적인 심리적 특성이 신체·인지적 결과로 인해 무기력함과 의욕저하를 느끼게 하고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는 취업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취업상태로 가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와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취업욕구를 포함한 재취업욕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기존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결과로서의 우울을 살펴보는 요인들의 일방적 방향이 아닌, 장애인의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취업욕구 간의 관계가 양방적이고 순환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의 검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장애인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성인 장애인 404명이며, 가설 검증을 위해 선형 회귀분석 및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욕구 유무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단계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성립하였으므로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심리사회적 자원(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수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장애인이 우울하다고 인지할수록 각각의 심리사회적 자원인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3]이 지지되었다. 장애인이 갖는 우울한 감정은 이들의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준과 실질적 사회적 지지 횟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성립하였으므로 [연구가설 2.2] 역시 지지되었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서의 각각의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 4]의 선행 단계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독립변수인 우울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 실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 자아존중감이라는 세 가지의 심리사회적 자원(매개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있을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3]이 기각되었다. 반면 장애인의 우울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실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는 취업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3.2]만이 지지되었다.

넷째, [연구문제 4]는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각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두 중재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 성립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았으며,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1]과 [연구가설 4.3]은 기각되었다. 매개효과 성립조건에 부합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인 중재변수는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 횟수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회귀계수표준화,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는 증가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 횟수는 취업욕구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 사회적 지지의 횟수라는 중재변수의 매개효과 사후 검증에서 p value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질적 사회적 지지의 횟수는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가설 4.2]도 기각되었다.

다섯째, [연구문제 5]는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중재변수인 심리사회적 자원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해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하고 독립변수인 우울수준과 각각의 중재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 3개를 생성한 후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항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사회적 지지,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1], [연구가설 5.2], [연구가설 5.3] 모두 기각되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면 <표 5-11>과 같다.

<표 5-11> 연구결과 요약

[연구문제 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2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3	성인기의 장애인의 우울수준에 따라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성인기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3.2	성인기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3.3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취업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 4]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설명되는가?		
가설 4.1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기각
가설 4.2	성인기 장애인이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기각
가설 4.3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 5]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5.1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5.2	실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5.3	인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제 2 절 논 의

본 연구는 19~64세의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인지한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을 포함한 장애인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증세는 무기력함이나 의욕저하 등의 특징을 수반하며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재활로 가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방안의 마련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취업욕구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관련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정서적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변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과 취업욕구

본 연구에서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에 따른 취업욕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울함을 많이 느낄수록 취업욕구의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이 갖게 되는 심리적 증상 중 하나인 우울과 우울의 영향력에 대해 보고했던 기존의 연구들(Kuypers & Bengtson, 1973; Miller, 1983; Park, 1999; Woo & Lee, 1998; Milberg, Strang, & Jakobsson, 2004; 최용민·원상숙, 2010; 정민선,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과 일치한다. 이는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과 같은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에도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감이 심화되면 보상될 수 있는 활동이나 행동 표현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사회적 참여와 보상을 감소시키는 등 정서상의 악순환이 반복된다(Lewinsohn, 1974). 직업을 갖고 싶다는

욕구는 사회 참여 욕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의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울감의 심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울감이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투입했던 성별, 연령,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수준과 장애등급 등이 우울수준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가, 장애 정도가 심해질수록, 다시 말해 장애등급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수록 취업 욕구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로는 장애인이 겪는 우울감이 취업을 포함한 사회참여의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우울한 정서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장애인의 우울수준을 경감한다면 장애인으로 하여금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심리사회적인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이현주·강상경, 2009) 비장애인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2006년부터 매해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경우에도 장애인 집단이 비장애인 집단보다 경미한 차이로 우울수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황주희·전동일·김홍모, 2014). 본 연구에서도 기술통계 결과 장애인 4명 중 1명은 임상적 수준의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장애인이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의욕과 취업에 대한 욕구는 저하된다. 장애인은 우울의 지속으로 인해 다양한 인지적·신체적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우울증상이 지속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며, 무기력함과 의욕저하를 경험한다. 심해지는 경우 취업욕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재활 욕구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무력해지도록 만들며, 자살생각에 이르기도 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은 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으로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더욱 중요하다. 취업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는 삶의 의욕과 성공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우울과 같은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에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원조와 개입을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업이 시행중이지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1급과 2급 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돕는 지원이 대부분이다.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이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장애인의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기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을 뿐이므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인구사회학적 조건이라는 통제변수들을 감안하여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력이나 자격조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혀 우울감을 느끼고 의욕이 좌절됨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달업·노임대, 2004; 광지영·조정아, 2006; 정시내, 2012).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결혼 등을 통해 취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성의 심리·사회적 자원 요소들도 남성보다 낮은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 무기력한 직업생활을 유지하거나 직업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로 여성의 권익이 신장하고 있는 현대 변화에 맞추어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의 범위 확대 및 개발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수준의 경우, 본 연구에서 중위균등화 소득 60%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층 가구가 취업을 하고자 할 욕구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장애인이 수급장애인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한 정병오(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소득 수준은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며, 소득수준이 사회보장 수급의 혜택을 받을 만큼 낮을 경우,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수급탈락의 두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될 수 있다. 사회보장 수급 계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국가에서 적절한 선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되, 수급계층에만 머무르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취업과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개입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일의 가치를 알리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능력 개발이 실행되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궁극적인 목적인 직업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반면 교육수준의 경우, 성인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에 따른 취업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교육수준과 취업 가능성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기태 외, 1999; 오세란, 2008). 반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취업 가능성은 떨어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었다(이선우, 1999; 고관우, 2011; 한이슬, 2012).

혼인상태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취업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 등으로 유배우자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음이 증명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인상태는 취업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혼인상태가 이들의 취업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정병오(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취업할 승산이 더 높음을 보고한 한이슬(2012)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배우자의 지지’가 이들의 취업결정이나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보다

는 장애정도, 또는 일상생활 도움 정도 등이 이들의 취업욕구 유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장애유병기간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에 따른 취업욕구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인 성인기 장애인이 장애를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는지의 기간보다는 장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 등급이 취업욕구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을 그 이유로 고려해볼 수 있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업자 중 취업을 한 장애인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장애인에 비해 장애 정도가 경중이고 비교적 젊은 남성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가구원 수가 많고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취업욕구가 강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주로 여성, 고령, 중증, 뇌병변/정신적 장애인이 많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높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준비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이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양수정 외, 2013).

2.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과 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본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결과,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해당하는 인지한 사회적 지지, 실질적 사회적 지지의 횡수, 자아존중감에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반면,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우울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는 우울감이 높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 또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선행연구들(이익섭·김동기·엄태영, 2007; 방요순·김희영·허명, 2009; 전지혜, 2010; 이상준·안수영, 2011)과 일치한다.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장애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배제, 차별경험 등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도, 이들의 우울 정도가 높았을 때 장애수용과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한다(방요순·김희영·허명, 2009).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의 경우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지고 소극적 생활태도를 가지게 된다(Battle, 1978). 우울감을 더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소극적 생활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있으며, 일상생활 적응의 궁극적인 단계인 취업 및 직업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으로 차별을 받거나 사회에서의 불이익과 불편을 겪으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이선우, 1997; 전지혜, 2010). 이를 위해 의료적으로는 장애인의 우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감이 임상적 수준의 우울수준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대처한다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취업욕구에서도 낮은 수준의 우울감이 인지적 오류와 무기력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악순환의 반복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장애인 개별적인 심리상태에 초점을 둔 고용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고용정책의 적절한 도입 등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뿐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취업유지를 위해 이들이 받는 직무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울 예방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킬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김연실·권명진·김시경, 2012).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심리사회적 자원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은 횟수만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은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들이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 횟수가 장애인의 우울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장애등급이 6급인 경증에서 1급인 중증으로 갈수록 많은 횟수의 실질적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실제로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취업욕구가 저하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취업욕구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도움 정도를 많이 받지 않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장애 정도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Brolin, 1972; 이선우, 1997; 김기태 외, 1999; 고관우,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장애 2급으로 분류되는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직업재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김선아, 2007). 그러나 장애정도에 따른 취업 현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도 존재하였다(류정진·나운환, 2006).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업준비도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수정 외, 2013). 따라서 일상생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경미한 수준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의 장애 수준이 심각할수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일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애 정도와 실질적 사회적 지지의 횡수는 연관성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높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실제로 받는 횡수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살핌이나 물질적 지원 등 실질적 사회적 지지를 받은 횡수가 많아질수록 취업하고자 할 욕구가 저하될 수 있다.

오혜경(2002)의 연구에서는 취업 장애인의 81.8%가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도움이 없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할수록, 즉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사람의 취업 가능성이 낮거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 개입 정도나 도움 정도가 지나치게 될 경우 가족에게 의존적이 되어 자립심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직업유지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형열, 2007). 반면, 성인 중도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재활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연구도 존재하였다(양정빈·이종환, 2011).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실질적 사회적 지지를 받은 횡수의 11가지 분야 중 친구와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인 친구와 가족의 지지가 장애인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 선행연구가 있었다(신명호, 2002). 그러나 두 연구의 차이점이 있다면, 선행연구에서 친구나 가족의 지지가 장

애인의 취업 자체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취업욕구의 경우, 친구와 가족의 결정에 따르는 등 주변의 일방적인 도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장애인 스스로가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형제자매·친척, 친구 및 동료,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기타, 활동보조인 등 11가지 분야에서의 물질적 도움·보살핌의 횟수를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의 횟수로 개념화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야의 다양성이나 횟수로만 제공되는 일방적인 도움이나 서비스의 중복이 아닌, 장애인이 스스로 재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제공하는 도움으로 그 목적이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일차적인 지원체계인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단체와 사회복지 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주변인이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장애인 개인을 주체로 하여 스스로 취업을 위한 과정에서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원 등의 주변의 개입정도가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이 우울함을 극복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서 지지의 지속적인 제공 및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는 일차적인 목적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 확보와 경제적 안정임을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사회적 약자로도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은 많은 경우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의 하향화가 발생하게 된다(류정순·허선, 2008).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실감과 자아존중감의 결여는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심중우·한승한, 2012).

이러한 결과는 일정시간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꺼리는 장애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에 일정시간 이상의 경제활동이 사회보장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보장소득을 우려하여 경제활동을 축소하게 되기도 한다(오혜경, 2002). 취업은 소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논의해본다면, 저소득층 중에서도 국가적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이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비해 더 실질 소득수준이 높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에는 이러한 물질적 지원이나 보살핌이 포함되는데,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우 한번 선정기준에서 탈락하게 되면 기초보장 수급자 가구에 비해 공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므로, 이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욕구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일하게 되면 소정의 소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선정기준을 상회하는 소득수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차라리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존하여 생활하려고 하기도 할 것이다. 만약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대다수가 노동시장 진출을 포기하면서 취업욕구가 하락하는 실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위 결과들을 살펴볼 때, 소득수준은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유지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득보장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자신이 처한 장애상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통제한 가운데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지한 정도나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취업욕구의 변화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영향력 역시 없음을 확인하였다. 2급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도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포함된 사회적 지지와 직업재활 욕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가 존재한다(김선아, 2007). 따라서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 자체가 감소해야 이들의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거나 취업욕구가 증진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울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이나 임상적 수준 전 단계의 우울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거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보다는 우울감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취업욕구를 포함한 일상생활 회복의 욕구를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가진 우울 정서가 완화된다면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우울 정서에 대한 개입 이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끼리 집단 상담이나 그룹활동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Gattiker & Larwood(1988)은 직업적인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보았는데, 장애인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과정 역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성공적인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업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우울 정서에 대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주 이론으로 적용하였으며,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재활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포함한 재활 욕구를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나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횟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수준(stressor)은 장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울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욕구는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수준이 증가할수록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이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충분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행동반응으로 취업욕구의 강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취업욕구의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의 역할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취업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느끼는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같이 스스로 인지한 부분의 변화보다는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았을 때 그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등 심리사회적 자원은 취업욕구가 감소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이 취업욕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우울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uypers & Bengtson, 1973; Miller, 1983; Park, 1999; Woo & Lee, 1998; Milberg, Strang, & Jakobsson,

2004; 최용민·원상숙, 2010; 정민선,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우울수준에 따른 취업욕구의 변화 자체에 관심을 두어 이들이 겪는 심리적 특성인 우울 증상의 예방과 심리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울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과급효과는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며, 우울증상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역기능적 태도나 우울 생성적 귀인 양상이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정도부터 임상적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우울 상태 전반에 대한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담이나 음악·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사회적 접근은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장애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또한 우울과 심리사회적 개입, 욕구 간의 관계를 이론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들조차 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의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김교연, 2006; 김고은, 2011; 김영은, 2011; 윤세은·최연실, 2012; 이문숙·이명선, 2012; 이정미, 2012; 강현욱, 201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우울을 완화하여 욕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연구들은 많지 않다. 김보라·조정호·이지현(2013)의 경우 무용활동 프로그램이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우울증세를 경감하고 긍정적인 자아와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제공한다고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우울증세를 완화하고 삶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이 결과로서의 우울이라는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장애의 유형, 등급, 장애 상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 수준도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본 것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가 있다. Turner & McLean(1989)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취업욕구 간의 관계가 아닌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우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서의 반응이며 우울이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이 우울함을 느낄수록 스스로 인지하는 심리 사회적 자원(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 등)의 수준은 감소하게 되며, 우울할수록 취업에 대한 동기가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신체적 건강의 증진에만 중심을 두지 않고 우울과 같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여 결과로서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독립변인으로서의 장애인의 우울이 다양한 심리적 상태나 증상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실천적 함의

장애인이 인지한 우울 정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재활, 특히 그 중에서도 취업 과정과 취업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스스로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제공이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을 높이는 개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도입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우울감에 대해 사후 대책으로의 의료적 치료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제도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은 중요하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기관을 통해 시행되어 왔지만 그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의 우울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으로 장애인의 우울감이 해소된다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 무기력함이나 의욕감소가 줄어들어 취업에 대한 동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취약성이나 사회 환경, 차별 등의 요소가 아닌 장애인의 심리와 정신건강이 이들의 일상생활 영위와 재활 동기, 특히 취업을 위한 욕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영향을 받지만, 많은 횡수의 실제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오히려 취업욕구가 감소함을 확인하여 양적으로 충족되는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응답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아야만 하는 장애 정도가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김미옥(2005)은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과 이웃의 지지를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으며 개인적인 성격자원인 자아탄력성보다는 환경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양적으로 채워지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보다는 개인의 필요에 맞는, 장애인의 만족도가 보장될 만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의 우울수준 완화에도 긍정적인 순환적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이들의 취업 또는 직업을 갖기 위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우울을 포함한 장애인의 정서·심리적 상태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다양한 욕구를 다르게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조사된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반영할 만한 고용시장이 부족하다. 한국복지패널 6차년도 장애인부가조사 자료에서도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183명 중 대부분(103명, 56.28%)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 직업유지 시 차별을 받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할 것을 염려하여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3.28%). 장애인이 취업한 경우라고 해도, 저임금에 비해 무리한 업

무와 강도 높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장애인 직장체험 등의 장애인고용 관련 교육과 취업 프로그램도 단기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이나 기술훈련 중심의 프로그램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할 뿐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위축되어 우울감을 느끼고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증진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의 우울감이 완화되고 스스로 결정하여 얻은 취업경험이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향상될 수 있다.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모두 장애인협회나 단체, 공공직업안내소와 학교, 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취업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신명호, 2002). 장애인이 인지하는 우울수준이 약화되어 스스로 취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이들의 성취감은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욕구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와 관련 복지기관들의 긴밀한 업무 유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성공적인 장애인의 취업 뿐 아니라 긍정적인 취업경험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유지로 이어져서 장애인이 고정적인 수입을 획득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의 보장과 직업활동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주 수입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의 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심리상태에 부합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활성화로 연계될 것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복지학적 접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유형과 등급의 장애인이 가진 취업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고용관련 서비스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이나 취업동기 강화를 위한 심리적 요소를 고려한 교육, 외부활동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취업하여 안정된 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들의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보경(1999)은 산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가 장애극복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고양시켜주기를 바라거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회복 또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의지를 갖게 하는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가족구성원이나 친구 등의 주변인의 지지 외에도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장애인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에 개입하고 관리한다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손상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고 사회참여 및 취업활동에 대한 의지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우울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가벼운 수준의 우울은 예방할 수 있으며 치료의 예후가 좋은 반면, 임상적 수준의 우울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경우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우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벼운 우울을 느끼는 상태일 때의 이들의 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프로그램 생성은 장애인의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최근 범국민적인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가 이들의 신체적 손상과 신체적 건강의 증진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데,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상태로 인해, 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우울감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시도 자체를 꺼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별적 욕구 파악과 장애상태를 고려한 일자리 확충을 제언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은 많지만 한시적인 일자리 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장애인의 욕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취업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저소득층 가구에 속할 확률이 더 많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대체로 장애로 인한 손상으로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스스로 소득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류정순·허순, 2008).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활성화도 현 사회가 갖는 주요과제 중 하나이지만, 단기간의 일자리 체험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로 직업유지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직업 관련 욕구의 파악과 이들의 환경과 상황, 장애상태와 유형에 맞는 일자리 확충과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약화와 불리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는 등의 정신건강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우울이라는 심리적 문제로 인해 이들의 취업욕구가 저하되는 데는 장애인 가구가 대부분 직면하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취업욕구가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함을 경험하는 장애인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욕구가 더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저소득장애인 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급, 무주택 장애인 주거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가구는 종종 장애인의 경우거나 소수에 불과하다. 저소득 장애인이 현행 제도상 직장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하는 것보다는 공공부조로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

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보장 방안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류정순·허순, 2008). 선정 기준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 가구가 오히려 수급자인 가구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과 같은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이들이 취업을 하고 직업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욕구가 증대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장애인은 직업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고 의존이나 빈곤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소속감을 제공받으며 가치 있는 행위를 함으로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자아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본 연구는 장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적인 제약과 낙인, 차별 등을 겪어 우울감을 느끼는 장애인들의 취업욕구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직업재활과 취업으로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라는 내·외적 심리 사회적 자원의 제공은 장애인에게 취업욕구의 저하라는 위기로부터 회복을 증진시킬 것임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장애인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심리사회적 자원의 제공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장애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취업과 직업유지, 성공적인 재활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장애인의 우울과 취업욕구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과 취업상태의 순환적인 과정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여부나 취업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나 요인들을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살펴보았다는 데서 그 한계가 있으며, 진행된 연구의 수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이 인지한 우울수준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사회적 자원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 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와 같은 횡단연구는 우울과 취업욕구 간의 순환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즉, 장애인이 우울감을 느끼면 취업을 포함한 재활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 또는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우울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결과이며,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

가 사라지면서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취업욕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요소가 선행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횡단연구로 이러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종단연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더 명확하고 정확한 우울과 취업욕구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각 변수에 대한 영향력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이나 장애유병기간을 장애 관련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장애유형, 장애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정도, 또는 중도 장애인지 선천적인 장애인지 등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도 장애인이 느끼는 우울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향후 연구가 시행된다면 취업욕구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접근을 위한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직업성적을 단순한 취업욕구나 취업 상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점은 박수경(2012)이 주장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 관련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유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적인 직업 활동이 가능한 곳에 취업이 되어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든, 자아실현의 목적이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취업 상태와 취업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과 다양한 욕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여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본 연구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높거나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취업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취업욕구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집단을 나누거나 (0)과 (1)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연속변수로 투입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인지한 우울의 수준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장애관련변수들과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자료에서의 변수 부재로 인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광순. (2010).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이 유방암환자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 방식 및 반응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의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강현욱. (2013). 특수체육 편: 승마체험 적용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장애인가족의 우울과 가족기능의 변화.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1), 499-510.
- 고관우. (2011). 연령에 따른 장애인 취업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687-709.
- 고용노동부. (2012). 2012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_____. (2012). 2012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공혜경. (2010). 장애노인의 우울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지영·조정아. (2006).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직업능력 개발연구*, 9(2), 29-61.
- 권복순·박현숙. (2005). 성인여성장애인의 우울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169-192.
- 권석만. (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정혜. (2002).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95-607.
- 권태연. (2010).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중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현수. (2010). 장애인의 문제음주, 우울, 건강의 구조적 관계-빈곤수준에 따른 다집단분석의 적용-. *지역사회 연구*, 18(3), 131-153.
- 김경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고은. (2011).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우울-가족관계 만족의 중재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단일호), 237-259.

- 김교연. (2006).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상 어려움에 대한 대처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태·박병현·최말옥. (1999). 여성 지체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9, 61-80.
- _____. ·박병현·강철희·이성규·이경희. (1999).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33-66.
- 김미옥.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351-381.
- 김보라·조정호·이지현. (2013). 자연과학분야: 무용활동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의 우울증세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2), 115-128.
- 김보미. (2007).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 (2007).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직업재활 욕구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 (2009). 부산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논집*, 21, 95-131.
- 김연실·권명진·김시경. (201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1(2), 116-124.
- 김영은. (2011). 임상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치료학연구*, 6(1), 52-57.
- 김영일·허유성. (2009). 시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특성 및 위관련 변인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2009(11), 27-53.
- 김은정·오경자·하은혜. (1999). 우울증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지속성:

- 안정집단과 변동집단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27-39.
- _____. (1999). 임상: 임상적 우울집단과 준 임상 우울 집단의 심리 사회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95-104.
- 김정숙. (2011).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본적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적용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54(4), 305-321.
- 김정호. (2013).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관한 연구: 노동시장 진입 전후 차별의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양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진·박자경. (2007). 근로 장애인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51-274.
- 김지년. (2008). 정신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상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12). 정신장애인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지가 직업유지 요인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김희정. (2000).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은지. (2010). 우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근로활동과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정순·허순. (2008). 연구논문: 저소득 장애인의 가구유형별 지원방안. *사회과학연구*, 47(단일호), 209-225.
- 류정진·나운환. (2006). 일반논문: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2), 167-193.
- 류진혜·김태성. (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6(1), 211-232.

- 박미진. (2007).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97-211.
- 박상규 · 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 박석돈 · 김선주. (2003). 신장장애인 취업실태 및 직업욕구에 관한 조사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북 · 지체부자유아교육)*, 41, 179-200.
- 박수경. (2012).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요인, *재활복지*, 16(3), 293-318.
- 박자경. (2009).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1-31.
- 박정숙 · 권소라 · 전종설 · 강주희. (2009). 신체장애인의 알코올의존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장애인 복지학*, 11, 221-242.
- 박태경. (2010). 장애인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직종에 따른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전 · 이승욱. (2007).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북 · 지체부자유아교육)*, 50(2), 83-110.
- _____. · 이달엽 · 이승욱. (2003).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3(2), 101-127.
- 방요순 · 김희영 · 허명(2009). 뇌졸중 후 우울과 장애수용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2), 29-40.
- 변용찬 · 이정선. (2005).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5(1), 153-171.
- 손광훈 · 심미영 · 염동문. (2010). 장애인 취업욕구의 구조모형 분석, *장애와 고용*, 20(1), 129-150.
- 신명호. (2002).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취업과의 관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종우 · 한승한. (2012). 시각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검진, 건강행태와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 *대한안과학회지*, 53(12), 1870-1878.
- 심진예 · 남용현 · 강필수. (200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근로지

- 원인제도 도입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 보고서*, 1-144.
- _____. (2008). 실업자 직업훈련의 장애인 참여현황 및 취업효과 결정 요인, *장애와 고용*, 18(2), 185-209.
- 양수정·최종철·김호진·고제훈. (2013).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2년) 기초분석 보고서.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458.
- 양정빈·이중환. (2011).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및 재활동기 간의 인과관계 모형분석. *보건사회연구*, 31(2), 223-250.
- 어수봉. (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분석. *노동경제론집*, 19(1), 69-100.
- 엄승연·안성혁. (1994). 장애인 취업욕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1-103.
- 오세란. (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255-275.
- 오세철. (2004).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취업욕구 분석, *지체중복장애연구 (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44, 21-44.
- 오욱찬. (2011).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격차 분석, *사회보장연구*, 27(1), 1-25.
- 오혜경. (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3, 39-63.
- _____. (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13, 113-146.
- 우희순·장기연. (2012).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적 자기 개념 및 취업 욕구와 구직 효능감, *장애와 고용*, 22(4), 33-51.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 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선. (2012).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최연실. (2012).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

- 건강 영향요인.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339-364.
- 윤현숙·차홍봉·조양순. (2000).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137-153.
- 은보경. (1999). 산업재해장애인의 심리적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달엽. (1996).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연구소 발표 논문, 167-196.
- _____. (2003). 지체장애근로자의 직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131-153.
- _____. 노임대. (2003).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 비교연구, *장애인고용*, 51, 49-69.
- 이문숙, 이명선(2012). 신체활동 중심의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장애학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4), 307-318.
- 이방현. (2001). 기능이 높은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태화 샘솟는집 회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2(단일호), 19-36.
- 이상준·안수영. (2011).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검증, *장애와 고용*, 21(72), 239-266.
- 이상현. (2005). 무엇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4-11.
- 이선혜·서진환. (2010). 한국 성인의 정신건강역량: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127-158.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287-313.
- 이성규. (2001).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1(2), 109-138.
- 이은미. (2012).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경험하는 직업재활 욕구와 실

- 태, *장애와 고용*, 22(4), 295-322.
- 이익섭 · 김동기 · 엄태영. (2007).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 79-24.
- 이정미. (2012). 긍정개입프로그램,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탐색. *장애아동인권연구*, 3(1), 29-42.
- 이종화. (2005).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신간호학회지*, 14(2), 109-118.
- 이현경. (2011). 정신적 장애인의 근로소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23-44.
- 이현주 ·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한국복지패널 장애인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93-217.
- 이현지. (2005). 장애아동 모(母)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1(4), 87-109.
- 이형열. (2007). 청각장애인의 환경, 심리요인이 직업유지기간과 직업유지의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8, 75-103.
- _____. (2008). 장애유형별 취업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직업훈련, 직업만족이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뇌병변, 시각, 신장, 청각장애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2, 109-134.
- 임미화 · 양수정 · 김호진 · 김연아. (2010).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임효순 · 이홍직. (2009).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9(3), 27-50.
- 장재윤 · 장은영 ·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전이상. (2002).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1-80.

- 정민선. (2012).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2(4), 169-185.
- 정병오. (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20(2), 143-174.
- 정시내. (2012). 노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철·박윤정. (2012). 정신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2(4), 187-209.
- 정혜영. (2011). 여성장애인 구직욕구 강화를 위한 공단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83-102.
- 조민수. (2009).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141-157.
- 조상욱. (2013).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이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상은·강상경. (2010). 지체장애인의 스트레스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처자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371-398.
- 조성재. (2007).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재활 상담 기법 및 중재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2), 493-508.
- 조성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진미정. (200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 간의 인과관계 연구: 미국의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7), 169-184.
- 진혜민. (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봉석 · 장세진 · 박종구(1992).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5(4), 429-447.
- 최미경 · 이영희. (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 지지 및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간호학회지*, 19(2), 196-204.
- 최세나. (2009). 장애자녀 어머니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민 · 원상숙. (2010). 심리적 요인과 근로사업 만족도 요인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0(2), 195-220.
- 최일섭 · 최성재. (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 최희수. (1999). 정신분열증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희철. (2009). 취업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역량강화 실천이 직업재활성공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6(3), 197-2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2012년 4/4분기 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국 취업지원부.
- 허수정. (2011).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취업 및 근로활동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 · 토론회, 11, 661-686.
- 황성혜 · 임원균. (2012).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6(3), 245-268.
- 황주희 · 전동일 · 김홍모. (2014). 장애인의 실업과 우울 사이의 상호인과성 분석. *장애와 고용*, 24(1), 27-49.
- 황현철. (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1(4), 63-89.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파주: 교육과학사.
- 홍혜영. (2002). 정신장애인 취업욕구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 745–746.
- _____. (1987). The Social Work Dictionary, Maryland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Maryland.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 745–746.
-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rolin, D. (1972). Value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Correlates of Vocational Success with the Mentally Retarded,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6*, 644–651.
- Brown, G. W., & Harris, T.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Reply. *Psychol Med, 8*(4), 577–88.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3), 473–505.
- Cimarolli, VR, & Wang, S. (2006).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Employed and Unemployed Adults Who Ar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0*,

- 545–55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ok, J. A. (2003). Depressi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121–129.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186–193.
- _____, & Downey, G. (1991). Social Factors and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1), 401–425.
- Creed, P. A., Machin, M.A., & Hicks, R. (1999). Improving Mental Health Status and Coping Abilities for Long-term Unemployed Youth Using Cognitive-behavior Therapy Based Interven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 963–978.
- Cyders, M. A. & Coskunpinar, A. (2011). Depression, Impulsivity and Health-related Disability: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679–682.
- Dean, A, & Lin 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ject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 403–417.
- Elinson, L., Houck, P., Marcus, S. C., & Pincus, H. A. (2004). Depression and the Ability to Work, *Psychiatric Services*, 55(1), 29–34.
- Friendland, J. & McColl, M. (1992). Disability and depression: Some Etiological Considerations, *Social Science Medicine*,

34(4), 395–403.

- Fulton, S. A., & Sabornie, E. J. (1994). Evidence of Employment Inequality among Female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8(2), 149–165.
- Gattiker. U., & Larwood. L. (1988). Predictors for Managers career Mobility, Success, and Satisfaction. *Human Relations*, 41, 569–591.
- Gladstone, G. L., Parker, G. B., Malhi, G. S., & Wilhelm, K. A. (2007). Feeling Unsupported? An Investigation of Depressed Patients' Percept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3(1), 147–154.
- Gore, S.(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Hammarstrom, A., & Janlett, U. (1997).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 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20, 293–305.
- Hoare, P. N., & Machin, M. A. (2004). Self-esteem, Affectivity, and Deprivation: Predictors of Well-being in the Unemployed. In Proceedings of the 39th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Annual Conference: Psychological Science in Action,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143–147.
- Honey, A., Emerson, E., & Llewellyn, G. (2011).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Impact of Social Conditions, *Social Psychiatry Epidemiology*, 46, 1–10.
- House, J.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 Karasek, R, & Theorell T (1990). *Healthy Work: Stress, Productivity,*

-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king Life. New York.: Basic Books.
- Kessler, R. C. (1997).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191–214.
- Kieselbach, T. (2003). Long-term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The Risk of Social exclu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69–76.
- Kirmayer, L. J., & Robbins, J. M. (1991). Three Forms of Somatization in Primary Care: Prevalence, Co-occurrenc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647–65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Koenig, H. G., Westlund, R. E., George, L. K., Hughes, D. C., Blazer, D. G., & Hybels, C. (1993). Abbreviating the Duke Social Support Index for Use in Chronically Ill Elderly Individuals. *Psychosomatics*, 34(1), 61–69.
- Kuypers, J. A., & Bengtson, V. L. (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Human development*, 16(3), 181–201.
-
- _____ (1973). Social Labeling Theory. *Psychology and Aging*, 3, 233–244.
- Lazarus, Richard S., & Folkman, Sus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 Leblanc, A. J., Driscoll, A. K., & Pearlin, L. I. (2004). Religiosity and the Expansion of Caregiver Stress. *Aging & Mental health*, 8(5), 410–421.
- Lee, H. S., Kim, D. K., & Kim, J. H. (2006). Stress in Caregivers of Demented People in Korea: A Modification of Pearlin and Colleagues' Stres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8), 784–791.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 Friedman & M.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C: Winston.
- Lloyd, C., & Waghorn, G. (2007). The Importance of Vocation in Recovery for Young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0*(2), 50–59.
- Mackinnon, D. P., & Dwyer, J. (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7*(2), 144–158.
- _____, Fairchild, A. J., & Fritz, M. S. (2007).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93.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ilberg, A., Strang, P., & Jakobsson, M. (2004). Next of kin's Experience of Powerlessness and Helplessness in Palliative Home Care, *Support Care Cancer*, *12*(2), 120–128.
- Munakata, T. (1996). *Health and Illness in Behavioral Science*. Tokyo: Medikaru Hurendo Sha.
- Myers, R. (1999).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 Boston: PWS–Kent.
- Okoro, C. A., Strine, T. W., Balluz, L. S., Crews, J. E., Dhingra, S., Berry, J. T., & Mokdad, A. H. (2009). Serious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4*, 52–60.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London: Macmillan.
- Park, S. Y. (1999).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Powerlessnes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Pati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 425–435.

- Patterson, L. J. (1997). Long-term Unemployment Amongst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261–280.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_____.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99). The Stress Process Revisited.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Springer US, 395–415.
- _____, Aneshensel, A.S., & Leblanc. A. J.(1997). The Forms and Mechanisms of Stress Proliferation: The Case of AIDS Caregiv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 223–236.
- _____,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 Pinneau SR. (1976)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Occupational Stresses and Strai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Procidano, M. E.,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1–24.
- Rabkin J. G., & Struening E.(1976). Life events, Stress, and Illness. *Science*, 3, 1013–102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eligman, M. E. P. (1974).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H. Freeman.
- Sun, F., Hilgeman, M. M., Durkin, D. W., Allen, R. S., & Burgio, L. D. (2009). Perceived Income Inadequacy as a Predictor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Alzheimer' s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24(1), 177.
- Teasdale, J. D. (1988). Cognitive vulnerability to persistent depression, *Cognition and Emotion*, 2, 247-274.
- _____. (1993). Emotion and Two Kinds of Meaning: Cognitive Therapy and Applied Cognitive Scienc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4), 339-354.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3-79.
- Turner, R. J., & Noh, S. (1988). Physical Disability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1), 23-37.
- _____., & McLean, P. D. (1989). Physical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Rehabilitation Psychology*, 34(4), 225-242.
-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Wolfensberg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Toronto: National Institutes of Mental Retardation.
- Woo, G. M., & Lee, M. H. (1998). An Effect of Beach Ball Play for Depression, Powerlessness, Self-esteem, Activity of Daily Living in Stroke Patients,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1), 15-2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standardized $\tau = \tau / \text{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tau' = \tau' / \text{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 b / \text{SD}(y')$ from Model 2.

$$\text{standardized } \tau = -0.030 / \underline{1.840653} = -0.0163$$

$$\text{standardized } \tau' = -0.027 / \underline{1.892636} = -0.0143$$

$$\text{standardized } b = -0.189 / \underline{1.892636} = -0.0998$$

$$\text{standardized S.E. } (\tau) = 0.012 / \underline{1.840653} = 0.006519$$

$$\text{standardized S.E. } (\tau') = 0.013 / \underline{1.892636} = 0.006869$$

$$\text{standardized S.E. } (b) = 0.061 / \underline{1.892636} = 0.03223$$

$$\tau - \tau' = |-0.0163 - (-0.0143)| = 0.002$$

$$a * b = (-0.027) * (-0.0998) = 0.002$$

$$ab = \tau - \tau'$$

Abstract

The Effects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f Adults with Disabilities on Employment Needs

Seo, Young 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disability rate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Korea, concerns about disability and needs of welfar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come emphasiz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depression level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n employment needs. Once people with disabilities secure employment, they have the advantages of securing income and reducing risks from dependence or poverty. Furthermore, they get a chance to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their work and improve their qualities of life.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have and maintain occupation in adulthood. Nevertheless, depression may make people with disabilities become lethargic and experience a decline in enthusiasm, calling for social research that can prevent decreasing employment needs due to depression.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mostly verifying depression as

a result and different factors of depression. However, this strives to examine whether motivation degradation to get a job is caused by depression since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levels and desire to work could be ambivalent.

On the basis of the Stress Process Model suggested by Pearlin et al.(1981), the research qu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Does the depression level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ffect employment needs?
- (2) Does the depression level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ffect psychosocial resources?
- (3) Do psychosocial resources such a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ffect employment needs?
- (4) Do psychosocial resources have a mediating effect on depression levels and employment needs?
- (5) Do psychosocial resources have a moderating effect on depression levels and employment needs?

In order to explore the hypotheses, the 6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national survey data, was us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depression levels affect the desire to wor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total of 404 cas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ing from 19 to 64 years in age, was included in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PSS 19.0 was the main tool for the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ossibilities of taking a job are shown to decrease as

the depression level of the subjects increase.

Secondly, the level of depression has a negative effect on psychosocial resources including perceived social support, frequency of enacted support, and self-esteem. As levels of depress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ncreas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decrease. Meanwhile, those who display severe levels of depression are offered enacted support much more frequently.

Thirdly, among the three psychosocial resources, only the frequency of enacted support has a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ression level of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employment needs in order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in subsequent analyses.

Fourthly, perceived social support or self-esteem is found to be not enough to account for the hypothesis that has been made. Besid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ractical support frequency is not observed clearly from the post-statistical test. Consequently, all of the three psychosocial resources could no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employment needs.

Lastly, it is not proved that there are interaction effects in the connection between depression levels and employment needs.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the impact of depression on employment desires are not different, even with variation of depression levels.

Based on this analysis, the depression level of adults with disabilities negatively impacts employment needs. In contrast to previous literature only examining depression's role as an outcome,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by observing depression as a potential factors in employment.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research implications in that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employment desir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ay be interactive rather than one-way, unlike previous studies. Rather than just the physical status, the psychological status of beneficiaries is considered much more important. As emotional features can negatively affect having employment desires, in this respect, we should focus not only on physical conditions but also psychosocial states, such as having a suitable amount of social support and adequate self-esteem. While the literature to date has focused on the emotional states of the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has not sufficiently examined similar dimensions of the actual people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social welfare centers or welfare agencies should also provide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stead of merely assisting the family members.

Nevertheless, the current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secondary data were used implementing the analysis. Cross-sectional data might not be appropriate if it would be lasting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level and motivation to work over years. Also, the varying types of disabilities and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not fully considered. In addition, due to the absence of particular variables in panel data, in-depth analysis of relevant phenomena could be limite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lleviat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words : Self-perceived depression, Adults with disability,
Employment needs, Social support, Self-esteem,
Stress Process Model

Student Number : 2011-23148